

'The-K'의 첫 번째 가치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50년, 슬로건은 달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The-K의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The-K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 The-K

대한민국 행복을 살입니다

우리 모두의 가슴엔 선생님이 있습니다

바르고 정직한 기업 The-K 가족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호텔엔리조트 The-K 제주호텔 The-K 저축은행 The-K 교직원나라
The-K 소피아그린 The-K 손해보험 The-K 서드에이지 The-K 에다함상조



아름다운 동행

이금남 제주 고산초 · 문애선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 · 오영희 제주 대정초 교장

브랜뉴 여행

빅토리아, 꽃과 초월의 도시

꿈꿀 공간

경기 양주도담학교

CONTENTS

2019 MARCH VOL.19



4

여는 글
이 계절, 잘 지내고 있나요

6

Essay
3월, 새로운 아이들과 만남
남상오 서울 노원초 교사

8

Inside Out
너도? 야, 나두 하는 직장인의 자기계발

10

Interview
쓸모에서 태어난 학문의 쓸모 있는 삶에 관하여
한화택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

16

Interview
행복한 교사가 꿈꾸는 아시아 교육 공동체
정애경 서울국제고 교사

20

아름다운 동행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
이금남 제주 고산초 교장
문애선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 교장
오영희 제주 대정초 교장

26

민 나라 교육 편지
바닷빛 하늘을 가진 나라, 멕시코
김소현 멕시코 익투스 아카데미 한국어교원

30

트렌드 Go Go
밀레니얼, 가족의 새로운 초상

32

행복 만들기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림책의 따스함으로
'그림책 읽는 영월 선생님'

36

네오필리아
우리 겨레의 흔적을 찾아서

38

브랜뉴 여행
도시 문화 산책 ①
빅토리아, 꽃과 초월의 도시

44

문화 산책
상상에 '날개'를 달아 일상을 날아오르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46

꿈꿀 공간
보편적 가치가 최고인 따뜻한 공간
경기 양주도담학교

50

재테크 랙토리
부담되는 교통비, 스마트하게 줄이는 법

52

The-K Focus
멘토가 있어 든든해요! 멘티가 있어 행복해요!
멘토링 희망캠프 2019

56

The-K Family
은은한 향기 가득 꽃길 따라 맛길 따라, 온몸에 퍼지는 새봄
The-K지리산가족호텔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3월 즉석당첨 이벤트

63

편집실에서 띄우는 편지
흔적을 따르는 길

The-K

VOL.19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차성수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9년 3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정라희 이성미 강나은
교열	박해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이은정 uncheang@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황원 장병국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이 계절, 잘 지내고 있나요

계절의 오고 감이 보이는 이 시간,
새로운 시간 앞에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지금의 계절을 온전히 누리고 있을까요.

지금 아니면 영영 오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계절을요.

이것만 떠올려주세요.
오늘 들이마신 첫 온기가 조금은 포근하길
오늘 내딛은 첫걸음이 조금 더 기운차길

끝 눈과 새싹이 서로를 위로하는 이 계절,
그 가운데에 서 있는
당신의 오늘이 당신의 내일이
조금은 더 따스해지길

그렇게 봄을 기다리듯
당신의 안녕을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3월, 새로운 아이들과 만남

글 남상오(서울 노원초 교사)



내가 교사로서 처음 아이들 앞에 선 것은 2001년 3월이다. 교육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풋풋한 신규 교사였던 나는 부푼 기대를 안고 교실 문을 열었다. 34명의 재잘거림으로 가득하던 교실은 내가 들어서는 순간 조용해졌고,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 쏠리자 나도 당황했다. 그 기억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지만, 그 시절 교실 풍경은 여전히 생생하게 뇌리에 남아 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옆 반 선생님께 수시로 전화해 이것저것을 묻곤 했다. '수업은 언제부터 하나요?'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하죠?' '모둠 구성은 어떻게 해요?' '주의를 쥐도 계속 떠드는 애들은 어떻게 혼내야 하나요?' 교대를 졸업해 교원 자격증을 받고, 임용고시도 통과해 공립학교에 발령을 받았지만 나는 사소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당연히 교사 생활 첫해는 말 그대로 좌충우돌이었다. 어설픈 학급 운영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교과, 생활 지도에서 느낀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교사 모임을 찾아다니거나 연수를 받기도 했지만 좀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다. 배우는 순간에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넘쳤지만 막상 배운 것을 교실에서 실행하다 보면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쉽사리 잘될 것처럼 가르쳐준 분들에게 따지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교사 생활 10년이 넘자 1년 차에 겪은 어려움은 대부분 사라졌다. 나만의 학급 운영 노하우가 생겼고, 걸 보기에는 아주 능숙한 교사가 된 것이다. 그렇다고 교사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았다. 10년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있었다. 기대가 사라진 곳에는 대신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이 자라기 시작했다. 어느 순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니 결국 교사로서 자존감마저 낮아졌다. 사소한 것에도 참지 못하고 신경질을 내는, 아이들에게 군림하는 교사가 되어 있었다.

당시 내겐 휴식과 전환점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서울교대 파견 교사에 지원했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에 교육연극과에 입학했다. 개인적으로 연극에 관심이 많았기에 교육연극과를 지원했지만 솔직히 교육연극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동안 내가 느낀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어보게 되었다.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으며 내가 직면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교육연극에 빠질수록 좀 더 직접적인 질문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아이들이 무엇을 경험하길 원했는가?' '그동안 내가 해온 학급 운영 방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즐겁게 학습하려면 어떤 준비, 과정, 태도가 필요할까?' 여전히 이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사라졌던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핵심 질문을 중심으로 2018년 학급 운영의 중심에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연극'을 두었다. 교육연극에서 주장하는 '자발성, 창의성은 놀이에서 시작되며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면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에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실행할 역량이 내게 충분하지 않았기에 기대한 것과 달리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의도와 전혀 다르게 수업이 진행된 적도 있고,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많은 아이가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음에 만족하고, 나 또한 아이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교사로서 보람을 느꼈다.

또다시 3월이 찾아왔다. 새로운 아이들과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다. 2019년 학급 운영의 중심에 '놀이를 중심으로 한 교육연극'을 두려고 한다. 아이들이 즐거움으로 시작된 자발성을 토대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 경험이 아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

남상오 서울 노원초 교사
평범한 19년 차 초등교사이자
두 아이의 아빠. 서울교육대학
교 연극 동아리 출신으로 연극
에 관심이 많아 아이들과 교실
에서 연극을 즐겨한다. 서울초
등교육연극연구회 회원이자
교육연극 교사 모임 '소꿉놀이'
에서 활동하고 있다.

너도? 야, 나두 하는 직장인의 자기계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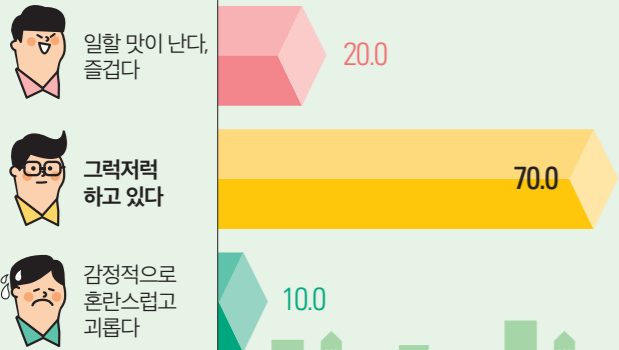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계획과 원대한 포부도 다짐합니다. 그 안에는 자기계발을 빼놓을 수 없는데, 공부하는 '셀러던트'의 자기계발 이유와 투자 시간 및 비용 등 직장인의 자기계발에 대한 공제회원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기간 2019년 2월 1~6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306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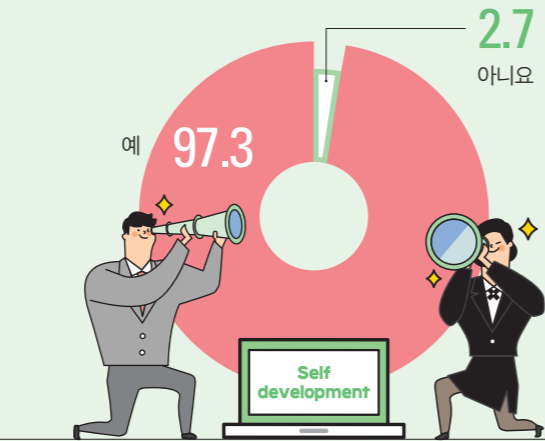
성별	남성	34.3
	여성	65.7
연령	20대	9.3
	30대	33.3
	40대	29.3
	50대	19.1
	60대 이상	9.0
직업	교원	58.1
	비교원	41.9
	유치원	2.7
	초등학교	27.0
	중학교	12.5
근무하는 직장	고등학교	15.4
	대학교(병원)	32.8
	교육 연구·행정 연구기관	7.1
	기타	2.6
직장 경력(10년 단위)	10년 이하	43.4
	11~20년	32.5
	21~30년	17.4
	31~40년	6.6
	41년 이상	0.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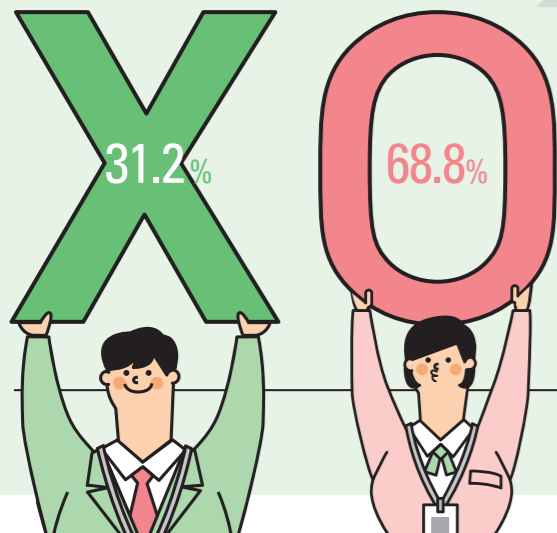
Q. 직장 생활에서 재미를 느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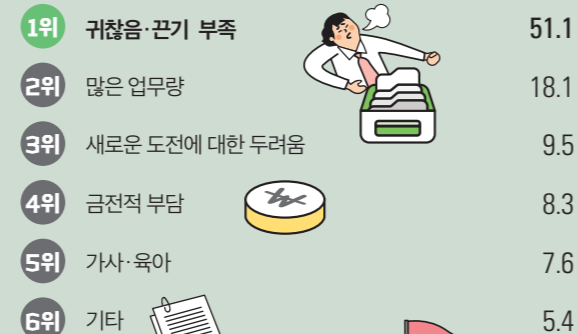
Q.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Q. 과거에 자기계발 목표 달성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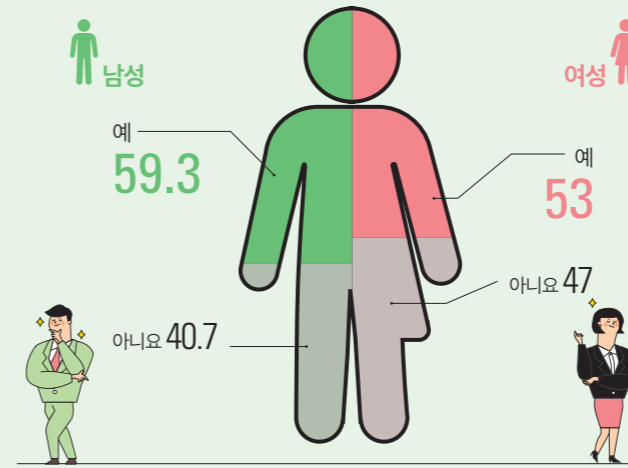


Q. 실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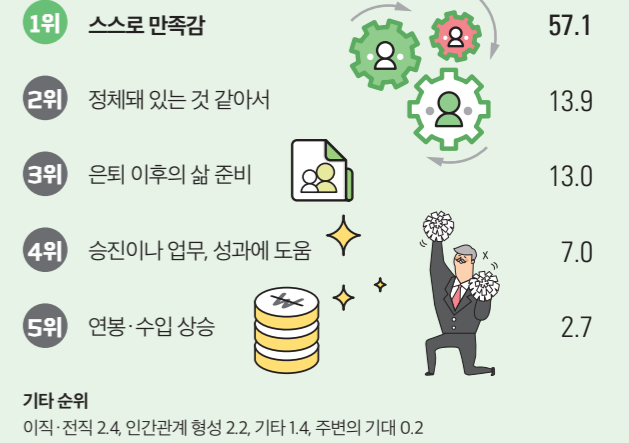


(단위: %)

Q. 현재 자기계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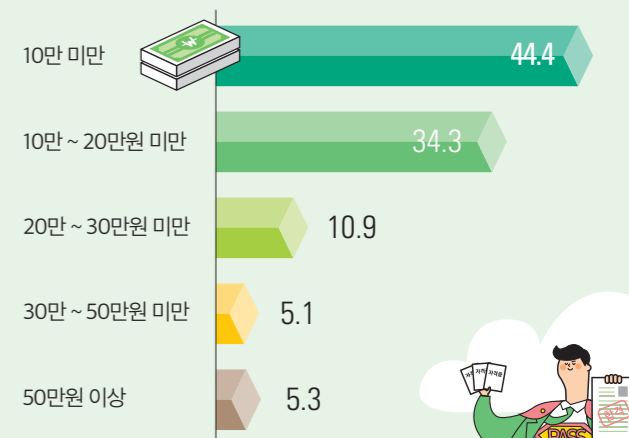
Q. 자기계발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Q. 지금 어떤 분야의 자기계발을 하고 있습니까?



Q. 매달 자기계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Q. 주로 어떤 방법으로 자기계발을 합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동영상 등 온라인 교육	22.0	26.2	30.4	30.5	18.5
관련 서적을 통해 독학	23.7	29.2	22.9	16.9	14.8
학원, 세미나, 연수원 등 오프라인 교육	25.4	20.9	19.5	22.2	20.1
동호회 또는 스터디 그룹 활동	11.9	7.9	14.1	17.2	30.2
기타	10.2	7.0	8.2	11.2	15.3
대학원 진학	6.8	8.8	5.0	2.1	1.1

쓸모에서

태어난

학문의

쓸모 있는

삶에

관하여

한 화 택

국민대
기계공학부 교수

한 마리 새가 하늘로 날아올랐다. 더 높이, 더 멀리 끝없이 날던 새는 언제부터인가 땅 위의 이들에게 구름의 감촉이나 바람의 냄새 같은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는 못해도, 하늘을 더 가까이 여기고 꿈꾸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공학의 거장, 한화택 교수의 이야기다.

글 이성미 사진 한상무



Han

Hwa

talk



그렇다면 공학이란 무엇일까? 공학(工學)에서 ‘공(工)’이라는 한자는 칼날의 모양을 본떠 만든 것처럼 공학은 칼, 즉 도구의 학문이다. 과학(科學)과 비교하면,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고, 공학은 과학 지식을 활용해 인류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과학에는 답이 분명히 존재하는 데 비해, 공학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최선책은 있을 수 있으나 정답은 없다. 출발점도 다르다. 과학은 호기심에서, 공학은 쓸모와 필요에서 시작된다. 언어가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라면, 공학은 시대의 요구를 표현하는 도구다. 공학자가 사고력과 창의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대가 원하는 것을 헤아려(사고)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창의) 것이야말로 공학자가 평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공학자가 되는 방법에도 정답은 없다. 한화택 교수 역시 어린 시절 부서진 시계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태엽과 나사를 보고 작동 원리를 궁금해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학의 매력에 빠졌다. 돌을 깨는 것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공학자 한화택의 역사도 깨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갈라진 땅에서 새싹이 자라듯 부서진 기계 틈에서 공학자의 싹이 자랐다. 아니, 시인 파블로 네루다(Pablo Neruda)가 “시가 내게

로 왔어”라고 말했듯 공학이 운명처럼 그에게 다가온 것인지 모른다.

“어린 시절부터 뭔가 깨고 부수고 만지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기질이라고 할까요? 공학적 기질을 타고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공학자의 길로 들어선 것인지는 모르지요. 학생들도 자신의 기질을 빨리 발견한다면, 어떤 분야든 수월하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겠지요. 그럼 공학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이라 생각해요. 누구나 관심이 가는 일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또 공학은 사고력과 창의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 핸드스-온(hands-on) 교육, 즉 이론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손과 발을 써서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직접 해보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교육이 학생 스스로 자신이 공학에 관심이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요.”

공학은 소통의 학문

공학자의 길을 정한 후 그는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30년간 국민대 기계공학부에서 교수로서 공

학을 가르치는 동시에 유체역학과 공기 조화 등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국제인명센터(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 미국인명정보기관(American Biographical Institute) 등 3대 인명 사전에 모두 등재될 만큼 업적을 쌓았다. 또 미국 기술사(PE)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등록되고, 최근에는 미국난방냉동공조학회(ASHRAE) 펠로우 선정됐다.

미세먼지나 부유세균 등 환경문제는 이제 세계가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숙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그는 2020년 한국에서 열릴 실내 공기 환경 분야의 세계 최대 학술 대회 ‘Indoor Air 2020’의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처럼 공학자로서 이미 세계적 석학의 반열에 올랐음에도 그는 굳이 눈높이를 낮춰 보통 사람들에게 공학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공학은 소통의 학문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배관 설비나 위생 설비는 관로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오·폐수를 배출하죠. 또 공조나 환기 설비는 덕트(duct)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된 배기가스를 빼냅니다. 가스 설비는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전기 설비는 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죠. 이런 설비의 핵심은 바로 소통입니다. 물이나 공기 등이 잘 흐르게 하는 게 기본 역할이고, 마찬가지로 이들이 밖으로 새지 않

인류는 처음부터 공학자였다

우리 일상을 한 프레임에 담아보면,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공학적 요소가 존재한다. 무선 이어폰, 스마트폰처럼 작은 기기부터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와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공학’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공학을 자신의 삶과 별개 영역으로 여기고, 공학이라는 말 자체를 낯설어하기도 한다. 한화택 교수의 고뇌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이 공학을 전공자나 엔지니어만의 학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굳이 공학을 알아서 뭐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전공자가 아니어도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선 공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공학 기술이 점점 중요해지기 때문이죠. 인간을 일컬어 호모 파베르(Homo Faber), 즉 도구적 인간이라고 할 만큼 인류의 발전사는 곧 도구의 발전사라 할 수 있어요. 고대 엔지니어가 맨 처음 돌을 깨 사냥 도구를 만들었을 때부터 공학은 인류 문명을 이끌어왔죠.”





도록 해야 해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죠. 갈수록 설비 기구가 복잡해지지만, 그 안에는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약속이 존재해요. 그런 면에서 공학 자체가 소통의 학문인 셈이죠.”

단절이란 아주 작은 균열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서로 다른 세계를 연결하는 일은 조그만 이음매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한화택 교수는 공학과 보통 사람과의 작은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저술 활동을 계속한다. ‘공학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존재하네’ ‘공학이 매력적인 학문이구나’ 하는 것에서 시작해 더 많은 사람과 공학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 그것이 한화택 교수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공대에 진학하고도 공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이 있어요. 공학이라는 학문의 응용 범위가 아주 방대한데도 전공 서적에만 머물러 있는 학생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물론 일반인은 더하죠. 공학이라는 말 자체를 생소해해요. 문제가 뭘까 생각해보니 사람들에게 공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없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과학 과목은 있지만, 공학이란 과목은 어디에도 없어요. 학교에서 이미 수학과 과학에 흥미를 잃다 보니 공학은 더더욱 멀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공이 아닌 교



양으로서 공학을 설명하는 책을 썼어요. 요즘에는 공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 많아 중·고생의 눈높이에 맞춰 공학을 소개하는 책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10대에게 권하는 공학>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공학자의 칼은 세상을 관통한다

한화택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공학이 답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미 기술과 충돌을 수차례 경험했다. 그리고 기술 우위에 서서 이를 활용하는 사람은 앞서 나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도태된다는 것을 배웠다. 한화택 교수는 이처럼 공학을 이해하는 사람에게 변화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말한다.

“1차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급변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의 저항은 기계 파괴 운동(Luddite Movement)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단 과거만 그럴까요? 현 사회에서도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우려와 반감이 계속되고 있죠. 이런 때에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흐름을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기술을 활용해 그 우위에 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공학 안에 있어요.”

땅에서 바라보는 세상과 산 위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듯, 공학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보는 세상의 넓이는 달라진다. 공학이라는 날개를 달고 나면, 땅 위에서 일어나는 큰 파도는 작은 움직임에 불과해 보일지 모른다.

“국민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을 받들어 1946년 독립운동가인 해공 신익희(申翼熙) 선생이 세운 학교입니다. 해방된 조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민족 계몽과 유능한 인재 양성이라 믿은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학교에 몸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자부심입니다. 그러니 이 캠퍼스 안에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 앞으로의 소명이라고 생각해요. 아무쪼록 유능한 학생들이 좋은 뜻을 갖고 공부해, 특히 공학이라는 뾰족한 학문으로 신기술을 만들어내고 미래를 날카롭게 관통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공학자가 손에 쥔 칼은 한계의 장막을 찢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칼을 함께 쥔 인재를 기다리며, 한화택 교수는 공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쓸모 있는 오늘을 살아간다.



“**배관 설비나 위생 설비는 관로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오·폐수를 배출하죠. 또 공조나 환기 설비는 덕트(duct)로 깨끗한 공기를 공급하고 오염된 배기가스를 빼냅니다. 가스 설비는 가스관을 통해 가스를, 전기 설비는 전선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죠. 이런 설비의 핵심은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약속이 존재해요. 그런 면에서 공학 자체가 소통의 학문인 셈이죠.**”

행복한 교사가 꿈꾸는 아시아 교육 공동체

정애경 서울국제고 교사

정애경 교사는 방학 중인데도 무척 바빴다. 몸담고 있는 학교 일부터 몽골에서 온 교사들을 위한 연수, 아시아 교육 연수까지. 스케줄에는 바늘 하나 꽃을 틈이 없었다. 교사가 교사를 돕는 교육 개발 협력 NGO 세계시민교육연구소의 수장인 그를 만나러 간 시간은 바쁜 틈을 비집고 들어간 날이었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Jeong

Ae-kyoung

우연 혹은 필연

정애경 교사에게는 날개가 필요했다. 이는 그의 첫인상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었는데, 마치 날개만 있다면 어디론가 훨훨 날아갈 듯한 자유분방함이 돋보였다. 교무실 안에 그만의 역동적인 에너지가 가득 찼다. 이런 그가 교직에 몸담게 된 이유는 뜻밖이었다.

“처음부터 교사를 꿈꾼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는 좋아해서 방과 후나 쉬는 날에도 학교를 갔어요. 솔직히 교육보다는 언론 분야에 관심이 더 많았는데, 하루빨리 가정을 부양해야 했기에 교육과정을 이수했죠. 임용고시를 봤는데 그만 딱하니 붙어버렸어요. 그렇게 선생의 업을 가지게 됐습니다.(웃음)”

아름답고 훈훈한 전형적인 이야기는 그의 솔직함 덕분에 벽에 부딪혔다. 대신 명쾌한 정애경 교사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정애경 교사는 교사가 되고 나서도 천직이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찾지 못했다. ‘이 길이 과연 내 길인가’ 늘 생각하며 일했고, 그래서 방향도 많이 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용기’와 ‘상상력’ 그리고 약간의 ‘돈’이 필요한데, 당시 자신에게는 상상력만 있을 뿐 용기도, 돈도 없었다고 회상했다. 1980년대 사회 분위기는 그런 정애경 교사의 내적 갈등을 부채질했다. 당시 학교도 억압된 분위기였을 터.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지시하달의 사회였다. 태생적으로 자유롭고 자기주도적 성향이 강했던 정애경 교사와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았다.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듯 상부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시간을 버텨야만 했다. 초임 교사로서 밀려드는 일도 적지 않았다. 그 외중에도 언론고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이따금 시험을 쳤지만 공부할 겨를이 없었으니 당연히 붙을 리가 없었다.

세계시민교육연구소를 만든다

정애경 교사는 교사 생활 10년 차에 이르러 마음을 고쳐먹었다. 모두가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자신도 이에 동의해 이 세계를 떠나지 못하면서 계속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다. 교육계 안에서 ‘책임감 있는 일’이 필요했다. 그런 그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

“그때가 국내에 처음 생긴 NGO대학원에 원서를 낸 시기예요. 2000년도부터 해외 봉사 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그중 몽골 고비사막 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타고 베이징을 출발, 고비사막에서 나무를 심고 다시 자전거로 돌아오는 투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NGO 활동으로 해외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했죠.”

그렇다면 그가 ‘세계시민교육연구소’를 만든 계기가 이 자전거 투어 때문일까? 정애경 교사는 아니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2010년도에 인도에 가면서 인도 교육 NGO와 함께 오지를 방문했어요. 학교라고 해봤자 책상 하나가 없어 아이들이 맨바닥에 앉아 공부하는 곳이었는데, NGO가 상주하면서 대신 학교를 운영해주고 있더라고요.”

당시 인도 교육 NGO는 오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물탱크와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할 일을 지정해주었다. 그들은 학교 벽화 작업을 할 때 교육과정에 맞춰 그림 내용을 수정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삼투압 현상도 직접 실험할 여력이 없었기에 삼투압 과정을 그려달라는 구체적인 요구를 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숲속 마을, 숲속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정애경 교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서 교육 NGO의 활동과 영향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뜻밖에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 또한 가지 일이 일어났다. 당시만 해도 두발자유화, 교복자유화 문제로 학생들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위를 할 때였다. 그 시기의 생활지도부장은 쥘볼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 없는 최고로 어려운 자리였다. 그런 자리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맡은 정애경 교사를 다독이며 많은 도움을 준 존경하는 대선배 교사가 교사 생활에 회의를 느껴 정년을 코앞에 두고 그만 퇴직을 한 것이다.

“그 일은 나중에 제 모습일 수도, 존경하는 다른 선생님의 모습일 수도 있잖아요. 좌절과 절망 때문에 오랜 시간 가져온 가치관이자 삶을 어떻게 한순간에 포기할 수 있을까, 단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생각했습니다.”

교사들이 참 많이 힘들어한 시기다. 사방에서 마치 송곳으로 찌르듯 교사를 찢러대던 때였다. 결국 정애경 교사는 ‘그래, 아무도 교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돕자. 우리끼리 서로 손잡고 다독이고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되찾자!’라고 결심했다.

교사의 변화, 모두의 변화

2010년 세계시민교육연구소 창립준비위원회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간 쌓아온 해외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개발도상국가의 교육환경에도 눈길을 돌렸다. 네팔이나 캄보디아 등 학교에서 만난 무기력한 교사를 일깨우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교사들도 거시적 안목을 갖고 숨은 열정을 찾으며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엄홍길휴먼재단에서 네팔에 휴먼 스쿨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간신히 엄홍길 대장님을 만나 제안했죠. 대장님은 학교를 짓고, 우리는 교육 소프트웨어를 맡겠다고요.”

교사들은 자비를 들여 네팔 휴먼 스쿨을 찾아갔다. 아직 완공되지 않아 유리창 대신 비닐로 창을 막은 교실 바닥에서 벌벌 떨며 쪽잠을 자면서 네팔 교사들을 트레이닝시켰다. 지금껏 아홉 차례 방문한 네팔을 비롯해 이제는 세계시민교육연구소 교사들이 라오스와 몽골에서의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기획하고 진행했으니, 그 영역과 역량은 처음 시작과 비교해 말도 못하게 커진 셈이다. 세계시민교육연구소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묻자 정애경 교사는 네팔 룸비니에서의 일을 꺼냈다.

“네팔 룸비니 지역에 있는 낙후한 농촌 마을에 갔어요. 마을이 낙후했는데, 교실은 어땠겠어요. 교사가 4명밖에 없는 데다 처음에는 저희를 낯설어하며 거리를 뒀어요. 그래서 첫해에는 고생을 많이 했죠. 하지만 이듬해에 방문하자 교사들이 자기 발언을 하기 시작했고, 세 번째 갔을 때는 우리를 위해 마을의 나무를 잘라주더라고요. 나무가 무성해서 차로 들어가려면 30분 넘게 지체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다른 학교로 떠난 정애경 교사 일행은 훗날 그곳을 다시 방문했다. 그리고 그곳 교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말을 들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묻더라고요. 왜 자기들 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꼭 같이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주변을 돌아보니 학교가 너무 깨끗해지고, 교사는 아이들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우리나라 교실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그곳에서는 대단히 변한 거예요.”

정애경 교사는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지속적인 만남과 유대는 사람을, 학교를, 마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함께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애경 교사가 그때의 깨달음을 되새김질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는 꿈이 있다. 바로 아시아 교육 발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교사들과 함께 이루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같은 아시아 인임에도 아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심지어 다소 무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안타까워했다.

“세계시민교육연구소 교사들이 해외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니 처음 목표의 50%는 이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결국 아시아의 교육 발전이에요. 각각의 아시아 민족이 지닌 우수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모르거나 지나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지만, 저는 우리 교사들이 아시아 교육 공동체로 연대할 기틀을 만들기를 바라요.”

지속 가능한 아시아 교육을 위해 동료 교사들과 함께 거침없이 뛰고 있는 정애경 교사. 그는 교사가 주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교육의 힘을 확신하는 천생 교사였다.



“ 지속적인 만남과 유대는 사람을, 학교를, 마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함께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정애경 교사가 그때의 깨달음을 되새김질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



우리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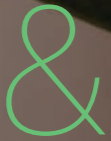
늘어난 수명 앞에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누군가는 건강, 누군가는 돈이라고 말할 테지만 오늘 모인 세 사람은 '좋은 친구'를 꼽는다. 35년 교직 생활에서 쌓은 애정을 안고 멀리 제주에서 날아온 3명의 교장선생님과 강원 춘천으로 떠났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장소 협조 KT&G 상상마당 춘천

문애선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 교장



오영희
제주 대정초 교장

이금남
제주 고산초 교장



명예퇴직을 앞둔 선배에게 주는 큰 선물

3월호 '아름다운 동행'의 주인공은 제주에서 춘천까지 날아온 문애선 교장과 이금남 교장, 오영희 교장이다. <The-K 매거진>에 사연을 보낸 이는 이금남 교장이었다. 당첨 소식에 이 교장은 하늘로 솟을 듯한 기쁨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 안에는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언니' 문애선 교장에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할 수 있다는 몽클함이 들어 있었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 다시 춘천으로 오기까지 세 사람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붉은 동백꽃처럼 웃음 지으며 올 수 있었던 것은 셋이서 함께한 첫 강원 여행이라는 의미 덕분일 것이다.

취재진과 3명의 교장선생님이 처음 만난 곳은 춘천시 사농동에 자리한 '육림랜드'. 놀이공원과 동물원이 함께 있는 곳으로 분위기가 독특하다. 첨단 시설 대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듯 곳곳에 빛바랜 추억이 서려 있었다. 이들도 여지없이 "예전에 수학여행 온 곳 같다"라며 이곳의 빈티지함을 느꼈다.

20대 중반에 처음 만나 퇴임 언저리까지 오랜 시간을 동행한 이들에게 추억과 세월은 그 무엇보다 익숙하고 가까운 것이기 때문일 터. 어수룩하던 새내기 교사와 갓 결혼한 새댁 교사로 만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복돋고 이끌며 이들이 함께한 시간은 무려 35년이 지났다.

세 사람을 보고 있자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함이 확실했다. 3명의 관리직 교사가 회전목마를 탄 채 아이처럼 깔깔대고, 장난감 기차를 타며 난생 처음 놀이동산에 놀러온 어린아이처럼 함박웃음을 지었다. 제주 초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라는 무게감보다는 신참 교사 시절로 돌아간 듯한 해맑음이었다.



**웃음 속에서
지난 35년 세월을
되짚어보고 다시
맞이할 미래까지
그려보는 그들.
세 사람은
근사했던 기억의
숲에서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3색 우정, 3색 애정

소양강 스카이워크 위에서 그들을 맞이한 건 차디찬 강바람이었다. 소양강처녀 동상의 치맛자락 길이를 궁금해하는 사이 뉘엿뉘엿 붉은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보자 감탄을 금치 못하는 세 사람. 듣기만 해도 에너지가 샘솟는 이들의 외침이 소양강 위에 메아리쳤다. 신이 나 하늘까지 닿을 듯 팔짝 뛰는 오영희 교장을 보니 소양강처녀 동상마저 함박 웃을 기세다.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각자의 역할이 매우 확실하다. 문애선 교장은 우아하면서도 넘치는 왕언니의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이금남 교장은 유쾌한 행동파로 사방에 활력을 뿌렸다. 오영희 교장의 섬세함과 흥은 세 사람 관계에 목직한 추를 드리우니 새삼 삼각 구도가 안정적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금남 교장과 오영희 교장은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문애선 교장에 대한 애정과 찬사를 감추지 않았다. 35년 전 처음 만난 당시, 노상 집으로 불러 밥을 해 먹이고 함께 놀던 시간, 늘 자신들보다 서너 발자국씩 앞서가면서 한결 지표가 돼준 믿음직한 선배에게 끝없는 고마움을 표시했다. “교사로서의 삶도, 결혼도, 육아도, 관리직에 대한 도전도 언니는 매순간 우리를 이끌어주셨어요. 생각은 유연했고 매사에 진취적이었죠. 후배로서 모든 것을 본받을 만합니다.” 이금남 교장의 말을 오영희 교장이 이어받았다. “모든 조언이 날카로우면서 따뜻했어요. 훗날 돌이켜보면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언제나 답을 얻고 싶은 존재로 옆에서 함께해주셨어요.” 후배들의 열화와 같은 칭찬에 문애선 교장이 몸둘 바를 몰라 했다. “두 사람이 나보다 어렸지만



배울 점은 내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세 사람이 마주 보는 눈빛에서는 진심이 뚝뚝 묻어나왔다. 견고한 이들의 우정이 부럽기만 했다.

더 아름다울 우리의 미래

다음 날 다시 만난 세 사람은 어제의 추위는 다 잊은 채 어깨를 활짝 펴고 있었다.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보낸 오전 시간은 즐겁기만 했다. 호반의 도시답게 커다란 호수를 코앞에 두고 마시는 커피와 따끈한 바게트의 맛은 입안에서 춤을 췄다. 갑작스러운 강추위에 미세먼지가 걸린 청량한 하늘과 문화 예술 공간이니만큼 곳곳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과 전시는 또 어떨까. 평소 문화 예술을 사랑해 가끔 날을 잡아 서울로 공연을 보러 올 정도로 취향이 비슷한 이들인지라 이곳에서 열린 전시회에도 흥미를 보였다. 지금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열린 <평/면적>은 평면 작업으로 분류되던 회화와 사진이 어떤 방식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주목하는 전시다. 찬찬히 전시장을 돌아보며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중간에 구입한 컬러 노트에 문애선 교장이 두 사람에게 마음을 담은 글귀도 적었다. 이어 강원도립화목원으로 떠났다. 내일의 봄을 미리 만나러 가기로 한 것. 달리는 차 안에서 “아, 정말 좋다~”라고 감탄을 내뱉고는 또 까르르 웃는 세 사람. 행복 바이러스가 주변에 안온하게 퍼지니 봄은 벌써 발치에 와 있었다. 도착한 화목원은 아기자기한 규모의 온실로 잘 꾸며진 곳이다. 따뜻한 온실에 들어서서 순간 아이처럼 기뻐하는 세 사람의 얼굴에는 나무 냄새, 흙냄새, 꽃향기까지 온몸에 스며들어 환한 꽃이 피어났다. 돌이켜보면 세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숲에서 나무를 키워내는 것과 비슷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땅에서 쏘옥 얼굴을 내밀던 새싹 시절. 비를 흠뻑

*영희, 금남에게
스치면 인연, 스며들면 사랑
우리에게 스며든 시간만큼
앞으로 함께하자
고마워♡*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습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십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맞아가며 줄기를 내고 잎을 내던 시간을 지나 교사로서 책무를 다하고, 조직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림과 육아까지 완벽히 해내야 했던 그 시간들. 3명 모두 성장하며 지금의 무성한 숲을 만들어내기까지 서로를 떠받쳐주었던 추억이 새록새록 이곳 화목원에서 떠오른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지켜온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인데 어떻게 매순간 좋기만 했겠어요. 서로에게 섭섭하거나 무심하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은 교육자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뢰와 존중으로 고민과 아픔을 공유하고 일상의 무게까지 나누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지요.”

세 사람은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아픔을 서로 경계해주고 틀렸음을 일깨워줘준 것이다.

“오래된 관계이다 보니 그 안에서 나를 보게 돼요. 누군가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다는 건 사실 내게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수긍하든 하지 못하든 타인이 날 보는 시선을 알려주면 당장은 서운해도 곰곰이 생각해보

면 굉장히 와닿아요. 우리는 이를 조심스럽지만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그것이 우리가 오래도록 관계를 지속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 사람이 주거나 받거나 이야기를 더하며 ‘장수 우정’의 이유를 말했다. 이것이 어찌 이들만의 이야기일까. 관계 맺기가 어려운 요즘 사회에서 모두가 두 손 들어 복창해도 좋은 말이 아닌가.

1박 2일의 여정이 끝나갔지만 어느 때보다 많은 이야기와 웃음이 있던 여행. 마지막까지 서로를 향한 덕담과 고마움, 애정을 감추지 않는 3명의 교장선생님이 지금까지의 여행과 참 달랐다고 한 데 입을 모았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관계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웃음 속에서 지난 35년 세월을 되짚어보고 다시 맞이할 미래까지 그려보는 그들. 세 사람은 근사했던 기억의 숲에서 아름다운 희망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성님, 지난 4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퇴직 이후의 삶도 파이팅입니다! 지금처럼 우리와 계속 놀아주세요.”

세 교장 선생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육림랜드

1975년 5월에 개원한 놀이공원 동물원이다. 개장한 지 오래된 만큼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지만 다양한 놀이시설과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기쁨은 변함없다.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곳을 찾고 있다.

📍 춘천시 영서로 2965
☎ 033-252-7225

소양강

춘천의 상징이자 관광객이 몰려드는 명소. 강원 중부 지역을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춘천 북쪽에서 합류하는 강이다. 소양강체너 동상과 스카이워크는 이곳의 상징물로, 강화유리로 만든 스카이워크를 걷다 보면 소양강이 발아래 가득 담긴다.

📍 춘천시 소양로 1가
☎ 033-250-3068

KT&G 상상마당 춘천

춘천이 자랑하는 복합 문화 공간. 숙박할 수 있는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 갓 나온 빵으로 입맛을 자극하는 카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바로 앞에 의암호가 펼쳐져 있어 더없이 근사한 풍경을 자랑한다.

📍 춘천시 스포츠터운길399번길 22
☎ 033-818-3200

도지골 등나무집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현지인의 맛집. 커다란 수족관 안에 쓰가리와 빙어 등이 가득해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신선한 회, 무침, 매운탕 등을 먹을 수 있다. 하나하나 손이 가는 밑반찬도 일미다.

📍 춘천시 신북읍 상천3길 2
☎ 033-242-2260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오영희 제주 대정초 교장

우리 셋이 춘천 여행을 떠난다고 했을 때 매우 기뻐지만 출발하는 발걸음은 조금 무거웠어요. 아무래도 매거진에 실리는 사진 촬영이 익숙지 않으니깐요.(웃음) 하지만 이런 기회로 우리 관계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은 정말 큰 행운이자 행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박 2일 여행 내내 우리의 지난 시간과 미래를 이야기하고, 풍경을 보며 웃고 지낸 시간이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나 사진 촬영하며 순간순간 서로를 바라보고 눈을 마주치며 끊임없이 웃었던 시간이 소중했어요. 우리 세 사람, 앞으로 더 건강하고, 웃고, 서로를 존중하며 행복한 관계가 꼭 지속되길 바라요. 우리 셋이 모두 퇴임하면 스페인과 티베트 여행을 함께하고픈 꿈도 꿴답니다.

문애선 제주대학교교육대학부설초 교장

평소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지만 이번 여행인 '아름다운 동행'으로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라는 깨달음과 새삼스레 두 선생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금남 선생보다는 늦게 알았지만 늘 흔들림 없는 진중함과 신중함으로 한 수 배우는 영희 선생,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모든 것을 공감하며 저에 대해 너무 많이 아는 금남 선생, 정말 고맙습니다. 명예퇴직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고민했는데 언제나 지지해주고 지켜봐주는 두 사람이 있어 큰 행복을 느낍니다. 더불어 40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할, 평생 잊지 못할 퇴임 선물을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우리 관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금남 제주 고산초 교장

KT&G 상상마당 춘천에서 영희가 책꽂이에 꽂혀 있는 전상국 작가의 <온생애의 한순간>을 꺼내 주는 데 심중했습니다. 나의 온생애를 관통하는 한순간이 바로 지금이었기 때문이죠. 지난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많고,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잖아요. 하지만 온생애 한순간을 지금처럼 살 수 있다면 언젠가 떠날 때 편안하게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35년 인연, 돌아켜보면 너무나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계속 이어가서 애선 언니가 교직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듯 우리 삶도 의미 있게 회향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고비마다 늘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 언제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바닷빛 하늘을 가진 나라 멕시코

초록색 유니폼, 라쿠카라차, 루차도르, 프리다 칼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멕시코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라쿠카라차'의 나라 멕시코는 31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구는 9600만 명으로 세계 10위, 공식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국민의 88%가 유럽인과 원주민의 혼혈이며, 10%는 토착민과 원주민으로 이루어진 대국입니다. 멕시코는 세계적인 휴양지 칸쿤, 고대 도시의 피라미드, 에메랄드빛 카리브 해안까지 다양한 모습을 지녔습니다. 아침이면 바닷빛보다 파란 하늘을 매일 볼 수 있는 곳, 여기는 멕시코입니다.

글 · 사진 김소현(멕시코 익투스 아카데미 한국어교원)



정열의 나라, 멕시코

'멕시코(Mexico)'는 스페인어로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유래했습니다. 멕시코시티는 '멕시코리 신의 땅'이라는 뜻으로 아즈텍 문명 때부터 이렇게 불렸습니다. 멕시코의 해발은 1800m, 우리나라의 한라산만큼 높아 1년 내내 평균온도 20°C가 유지됩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쾌적한 날씨죠. 매일매일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을 보고 사는 지금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매사 즐거워합니다. 자녀들의 장기 자랑

이 어설퍼도 힘차게 박수 쳐주고, 이벤트가 있는 날에는 학생은 물론 부모까지 완벽한 드레스 코드를 준비합니다. "슈퍼히어로 복장을 하고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온 가족이 슈퍼맨 티를 장만해 오거나 콘셉트에 맞는 옷을 집에서 재봉틀로 만들어 입고 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기는 문화, 제가 바라본 멕시코는 정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어로 꿈을 찾다

어느덧 멕시코에서 8년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어를 교육하는 한국어교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결혼 후 2년 반 남짓 서울 생활을 마치고 구호 단체 단원인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왔으니, 이제는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제가 사는 곳은 멕시코 최남단이자 과테말라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치아파스(Chiapas)입니다.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비행기를 한 번 더 타고 다시 차로 4시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곳입니다. 이곳에 오는 내내 창밖을 통해 보이는 건 엉성한 나무집과 폭신해 보이는 잔디 위에서 여유롭게 풀을 뜯는 양 떼,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는 아낙네들. 이것이 멕시코에 대한 첫인상이었죠. 도저히 도시라고는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시골길을 달리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작은 도시가 나왔습니다. 멕시코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 코미탄(Comitan)입니다. 이곳이 우리가 살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낯선 땅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멕시코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초·중·고 기숙형 사립학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300여 명이 재학 중이며, 이곳에서 한국어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통하지 않아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멕시코는 치안이 불안해서 남편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빴고, 홀로 남은 저는 점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학교에서 한국어를 교육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워어민으로서 가진 자신감'으로 시작한 첫 수업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 앞에



Mexico Chiapas





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국인 아줌마였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멕시코 학생들은 이런 저를 반겨 주었습니다. 수줍고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학교에만 가면 항상 학생들에 둘러싸여 지냈습니다. 마치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지요. 또 24개월 된 쌍꺼풀 없는 제 큰딸 비비는(멕시코 사람들은 100% 쌍꺼풀이 있습니다) 학교의 인기 스타가 되어 멕시코 언니 오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성장하게 되었죠.

멕시코에서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온종일을 아이들을 돌보는 데 쏟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어 수업이 있는 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수업 자료를 만들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 이 일을 꼭 해야겠구나.' 그렇게 한국의 사이버 대학원에 등록해 새벽 3시부터 일어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젓먹이 둘째를 수유하고, 큰딸 등·하원을 돕고, 한국어 수업을 병행하면서도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고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나' 싶은 후회는 졸업하는 날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나 먼 타지에서 저를 버티게 해준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어교원으로서 해외에서 필요한 자격을 하나씩 갖춰나가며 엄마 그리고 아내라는 명함 외에 전문 한국어교원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로 꿈꾸는 학생들

저희 학교는 개교 14주년을 맞이한, 미국계 한인이 세운 기독교숙학교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크게 시행하는 장학 사업은 바로 한국 유학입니다. 한국 대학과 MOU를 맺어 매년 두세 명씩 전액 장학금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최남단 치아파스는 다른 주에 비해 인디헤나(원주민)가 많고, 이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합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성장한 학생들은 큰 세상을 볼 기회가 적습니다. 이렇다 할 기술을 배우지 못하고 제때 교육도 받지 못해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 일을 한들 보수가 턱없이 적어 가정을 이루고 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이 학생들에게 한국어가 이들만의 기술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중남미에 현대자동차, 기아, 대우,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이 진출하고 있어 한국어가 가능한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들은 현지 대학 졸업자보다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일합니다.

실제로 한국 유학을 마치고 포스코에 취업해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처음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 9명의 형제 중 유일하게 첫 해외 유학길에 오른 친구입니다. 이 학생은 생전 처음 본 한국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워 자신의 인생은 물론 가정을 변화시키는 등 놀라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또한 제 한국어 교육 경력과 노력이 쌓일수록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제자 중에 EBS <외국인 장학퀴즈>에 출연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학 신입생 대표로 연설을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중미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학생도 생겼고요. 굴지의 한국 기업에 취업해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는 학생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한국어교원이 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한국어로 꿈을 꿀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한국 엄마로서 갖는 엄마 마음

8년 전, 멕시코에 올 때 제 나이는 28세, 24개월 아이를 둔 어린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진짜 엄마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초보 엄마였다면, 지금은 두 딸아이를 비롯해 한국에 14명의 자녀를 둔 '한국 엄마'가 되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40여 명의 청소년과 매일매일 복닥거리고 지내고 있으며, 때로는 고3 담임의 마음으로 학생들과 진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울러 엄마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고민을 나누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양한 만남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한국어교원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 무료하고 심심한 해외에서 시골살이를 이기지 못해 멕시코 생활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어교원 생활 8년 차인 지금,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 고민하는 많은 분과 소통하며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처럼 한국어교원이 되고 싶다는 고등학생부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경력 단절 여성, 아직도 꿈이 있다는 68세의 어르신까지 삶의 모습과 목표는 다르지만 한국어를 통해 꿈꾸는 사람들을 만나며 오늘도 한국어교원이라서 더욱 행복한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Soy Maestra de Coreano(저는 한국어교원입니다).



김소현
멕시코 익투스 아카데미 한국어교원
멕시코 사립학교에서 한국어부 팀장으로 한국어 교육과 한국 유학을 담당하고 있다. 심심한 멕시코 시골 생활 중 한국어 교육과 우연히 인연을 맺어 지금은 개인 SNS를 통해 한국어교원을 꿈꾸는 많은 이에게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



밀레니얼, 가족의 새로운 초상

“요즘 가족, 확실히 달라졌죠.” 가족 전문 스튜디오의 사진사가 말한다. 우선 남매 너댓 명에 사위와 며느리, 그보다 몇 배가 되는 손주를 거느린 대군단은 찾아보기 어렵다. 엄마 아빠 그리고 아이 하나가 발랄한 복장으로 카메라 앞에 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이를 대신해 강아지를 가운데 앉히는 부모도 있다. 가끔 대가족이 모일 때도 있는데 이때는 조부모, 이모, 삼촌이 아이 하나를 아이돌처럼 떠받든다. 이렇게 가족의 걸모습이 달라지는 만큼, 그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장면도 변화하고 있다.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밀레니얼,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이제 새로운 가족 구성의 중심이 되었다. 1인 가구 혹은 비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결혼은 당위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까?” 고민은 그들의 부모와 같다. 그러나 그 방법은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은 전통의 굴레와 싸우고 새로운 기술의 도움을 받으며 가족이라는 퍼즐을 새롭게 맞춰가고 있다. 기성세대는 그 모습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얼마 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흥미로운 글이 올라왔다.

“신혼집에 냉장고가 없어도 될까요?”

한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이 함께 살 집에 냉장고를 들이지 말자고 한다며 고민을 올린 것이다. 예비 신랑의 주장은 이랬다. “조식을 주는 아파트이니 아침은 공동 식당에서 해결하고, 점심은 각자 직장에서 먹고, 저녁은 둘 다 운동하면서 가볍게 해결하자. 평일엔 그렇게 보내고, 주말엔 외식을 하자.” 예비 신부는 “엄마가 반찬이나 김치 같은 거 해다 주시면 어디다 보관해?”라며 반대했지만 예비 신랑은 “엄마 부러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한테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많은 사람이 처음에는 살림에 무지한 젊은 남자를 탓하다가, 글을 끝까지 읽고서는 ‘묘하게 설득력 있다’며 찬성을 표하는 이도 많았다.

새로운 가족들은 관습보다는 실용이라는 깃발을 과감히 들어 올린다. 요리하는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식, 배달, 레토르트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로봇 청소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집안의 물건을 없앤다. 빨래도 주말에 데이트를 겸해 근처 런더리 카페(laundry cafe)를 이용한다. 이런 것은 모두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손님을 초대할 일도 거의 없는 미니멀 라이프스타일이기에 가능하다. 동시에 살림살이를 채워 넣을 만큼 넉넉한 집을 구할 형편도 안 되고, 세세한 가사에 재미를 느낄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 강제하는 삶이기도 하다.

전통적인 가정은 여성의 희생적인 가사 노동을 전제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부부가 결혼 전에 가사 노동을 합리적으로 분배한다. 하지만 이들의 부모, 특히 시댁에서는 이런 상황을 쉽게 용납하지 않는다. 다큐멘터리 영화 <B급 며느리>, 인기 웹툰 <며느라기>는 여성들이 ‘누군가의 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겪는 어려움을 고발하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최근에는 밀레니얼 가족의 명절 풍습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 제사를 대신해 가족 여행으로 연휴를 보내기도 하고, 아들과 딸이 각자 본가만 찾기도 한다. 물론 부모 세대의 저항도 적지 않다.

밀레니얼의 부모는 베이비붐 시대에 태어나 복적거리리는 가족 환경에서 성장했다. 결혼 뒤에는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워낸 것에 자부심이 크다. 그러나 밀레니얼은 핵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란 만큼 집단보다는 개인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 부모 세대보다 나은 경제와 문화생활을 누렸고, 어른이 된 이후에도 개인의 행복을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려고 애쓴다. 만약 밀레니얼이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 그들의 선택은 훨씬 큰 자율성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오랜 불황과 비싼 집값은 이들이 부모 곁을 쉬 떠나지 못하게 한다. 가부장 아버지는 재산을 담보로 전통적 가족상을 구현하도록 강제하고, 독립적 의식을 깨우친 며느리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게다가 이제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결혼을 통해 독립을 달성한 뒤에 미식, 여행, 취미 등을 적극적으로 즐긴다. 그러나 소비생활과 자산 축적을 병행하기는 어렵고,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요원하다.

물론 가족의 의미를 경제적 공동체로 좁혀서는 곤란하다. 가족이 필요한 더 큰 이유는, 가족을 대체하기 어려운 정서적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비혼을 적극 추구하는 사람들은 대안의 가족을 찾아야 한다. ‘에잇포켓족’이라는 말은 부모와 친가·외가 조부모, 이모, 삼촌 등이 아이 하나만 바라보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런 가족의 아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여덟 개의 주머니에서 꺼내 쓸 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가족의 위기’라는 말이 곳곳에 퍼져 있지만, 과거 어떤 때보다 단란한 가정의 모습을 만나기도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직장 회식이 부쩍 줄어든 만큼 부부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형제자매가 없고 같이 놀 또래도 줄어든 아이들은 부모와 놀 수밖에 없다. 키덜트 성향이 짙은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장난감을 조립하고, 놀이동산을 찾고, 아이돌 콘서트에 가는 삶이 즐겁다. 초핵가족이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모습, 밀레니얼 가족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풍경이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그림책의 따스함으로

‘그림책 읽는 영월 선생님’



좋은 책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준다. 그림책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아이를 위해 읽어주기 시작한 책이 어느새 교사의 마음에도 닿았다.
 한 편의 시처럼, 한 사람의 위로처럼, 또 다른 세상처럼 그렇게 그림책은 교사들을 움직였다.
 이제 교사들은 그림책에서 배운 대로 따뜻하고, 쉽게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한다.

글 강나은 사진 한상무





어린이에게도 어른에게도 그림책이 필요한 이유

햇볕이 가득 내리쬐는 평화로운 강원 영월의 한 카페. 커다란 테이블 위에는 알록알록 그림책이 쌓여 있다. 교사들은 책과 자신들의 이야기로 이야기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러다 한순간 조용히 책을 읽어나갔다. 잠시 뒤, 다시 그림책 속 한 장면과 한 구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독서 모임이나 책 연구회 등의 이름이 아닌 ‘그림책 읽는 영월 선생님’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이렇듯 형식이나 제한이 없는 까닭이다. 모두 각자 환경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그림책’에 빠진 이들은 운명처럼 ‘그림책’이라는 주제로 한곳에 모였다. 김희경 연당초 교사는 육아 휴직 중 자녀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혼자서도 그림책을 꺼내 들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어느새 제가 그림책을 보며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무엇보다 그림책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요. 그림책을 보다 보면 아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죠.”

정지아 내성초 교사 역시 그림책을 교육적 매개체로 대하다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우연히 <무릎딱지>라는 그림책을 보았어요. 그 책 줄거리가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어요. 아이가 엄마의 죽음을 이겨내는 모습을 무릎 상처가 딱지가 되었다가 아물고 떨어지는 과정으로 보여주거든요. 당시 제 마음에 참 많은 위안이 되었죠. 그때 ‘그림책이 아픈 마음을 치유할 수 있구나’ 느꼈어요.”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지난해 6월부터다. 강원 영월군이 행복교육지구로 지정되면서 교원 동아리를 모집하기 시작한 것. 그림책이 좋아 한달에 두 번 모이는 ‘그림책 읽는 영월 선생님’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어느새 제가 그림책을 보며 위로와 감동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뿐인가요. 무엇보다 그림책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해요. 그림책을 보다 보면 아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되죠.”



그림책의 따스함으로 다가가서 본 아이들

‘그림책 읽는 영월 선생님’ 회원들에게 그림책은 단순히 책이 아닌 하나의 세상이다. 임정민 내성초 교사는 그림책을 일컬어 ‘빨리 빠져들 수 있는 세계’라고 말한다.

“얇은 그림책 한 권만으로도 금세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어요. 아주 짧은 서사지만 그 속에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우리가 시나 소설을 읽는 이유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림책 속 세상을 더욱 의미 있게 즐기고, 깊이 빠질 수 있도록 ‘그림책 읽는 영월 선생님’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김희경 연당초 교사는 노명철 영월초 교사 덕분에 그림책을 캔버스로 보게 되었다.

“노명철 선생님은 그림을 잘 해석해주세요. 제가 못 보는 작가의 의도를 선생님께 설명해주실 때가 많은데, 사실은 그걸 듣고 싶어 오기도 해요. 예로 그냥 스케이트 타는 그림을 보고도 노 선생님은 작가의 의도와 감정선을 알아채시죠. 그 뒤로는 저도 그림책을 훨씬 넓은 시야로 보게 됐어요.”

그림책을 통한 교육 효과도 크다. 그림책에 대한 서로의 감상은 물론 교육 교재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저학년은 그림책 읽기로 책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 독서 습관을 갖게 하고, 고학년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돕는다.

“고학년이라고 해도 책 한 권을 읽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림책을 같이 읽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잘 이해하죠. 한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이 충분히 생각하게 할 수 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홍지영 영월초 연상분교장 교사는 “그림책으로 아이들과 더 가

까워졌다”며 그림책 읽기 활동을 강력 추천한다. 이상걸 영월초 교사 역시 고학년인 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곤 한다. “5~6학년 사회과 수업은 각종 개념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아이들은 정치는 어른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림책 이야기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몰입하면서 민주주의의 추상적인 개념을 조금씩 잡아 나갈 수 있어요.”

김미경 청령포초 교사는 그림책을 매개로 아이들의 진심을 느끼곤 한다.

“저는 항상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통이 그림책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어른들은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에만 빠져 있고 생각이 없어’라고 하지만 사실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없을 뿐이지 어른보다 생각이 더 기특하고 바를 때가 많아요.”

아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는 선생님에게 마음을 크게 연다. 마치 그림책에 빠져들고, 그림책에서 배우듯이 말이다.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보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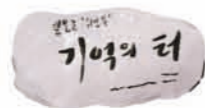
‘그림책 읽는 영월 선생님’은 학기 중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매달 둘째, 넷째 주 월요일 저녁에 만나 그림책을 함께 읽고, 학교살이와 수업 고민을 나누는 따뜻한 모임입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선생님, 그림책을 수업에 활용해보고 싶은 선생님, 그림책을 마음껏 읽고 싶은 선생님을 위해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그림책의 매력에 빠져보지 않으실래요?

☎ 이상걸 010-7455-1152

우리 겨레의 흔적을 찾아서

100년 전 3월 1일은 어떤 날이었을까. 누군가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걸은 날일 것이다. 올해는 1919년 3월 1일 우리 겨레가 독립을 위해 봉기한 삼일절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된 해이자 1919년 4월 13일에 선포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기도 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함을 담아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그들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 아닐까.

글 진미현 일러스트 청운



기억의 터

가슴 아픈 역사의 현실,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는 곳. 일본군 위안부 피해가 세계적 문제로 떠올랐음에도 아픔을 기리는 장소가 없다는 지적에서 추진된 공간이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강제 체결된 통감관저 터에 자리해 치욕의 공간에서 역사를 기억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기억의 터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247명의 성함과 시기별 증언을 새긴 '대지의 눈'과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글귀가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새겨진 '세상의 배꼽'이 설치돼 있다. 범국민 모금 운동 '기억의 터 디딤돌 쌓기'를 통해 1만 9755명의 국민이 함께해 깊은 뜻을 더한다.

①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 국민을 탄압한 대표적인 기관. 1908년 일본군은 1945년 해방을 맞을 때까지 서대문형무소에 5000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가두고 고문했다. 해방 이후 1987년까지 서울구치소로 이용되는 동안 민주화 운동을 펼친 인사들이 그 자리를 대신해 또 다른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삼일운동 직후 유관순 열사가 투옥돼 숨을 거둔 지하 옥사와 감시탑, 고문실, 사형장, 옥사 7개동, 역사 전시관 등으로 구성돼 있어 근현대 역사의 중심이자 자주 독립운동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으로 마련돼 있다.

① 주소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임청각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국무령을 지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한 석주 이상룡 선생의 생가다. 선생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답은 물론 99칸짜리 임청각까지 처분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했다. 또 신홍무관학교를 세우는 등 무장 독립 투쟁의 중심에서 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일제강점기 일본군은 임청각을 철거하기로 하지만 주민의 반대가 격렬했다. 결국 일본군은 임청각 중앙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놓았는데 직선이 원칙인 철로를 두 번이나 꺾어 우회해 철교를 놓고, 세 개의 터널을 뚫으면서까지 임청각을 파괴시켰다. 그 이유는 임청각이 독립운동의 산실이었기 때문이다. 선생을 비롯해 선생의 아들, 손자, 손자며느리 등 4대에 걸쳐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10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 선생의 처가와 사돈까지 포함하면 40여 명의 독립운동가가 나왔다.

① 주소 경북 안동시 임청각길 63



소안도

전남 완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작은 섬이 있다. 항일운동의 성지이자 1년 365일 내내 태극기의 물결로 섬 전체가 뒤덮인 곳. 실제 '항일의 섬'으로 불리는 소안도는 광복 후 건국훈장을 받은 20명을 포함해 8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다. 그 가운데는 사립소안학교를 설립한 송내호 선생이 있다. 삼일운동 당시 서울에서 독립선언서를 가져와 3월 15일 완도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사립소안학교는 소안도 항일의 상징이었다. 소안학교의 '사립'은 일제가 만든 학교가 아닌 우리가 직접 만든 학교임을 표현한 것. 인근의 노화도, 보길도, 해남을 비롯해 제주에서도 소안도의 독립 의식을 배우기 위해 유학생이 몰려왔다.

① 주소 전남 완도군 소안면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공원

제주 해녀의 항일 정신이 깃든 역사적인 장소이자 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곳. 1931년과 1932년 제주 동부 지역에서 일제 수탈과 착취에 반발, 생존권 투쟁을 위해 해녀들이 대규모 항일운동을 벌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여성 항일운동인 '해녀항일운동'은 여성들이 주도한 유일한 항일운동이었다. 해녀항일운동기념탑과 해녀박물관까지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① 주소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해녀박물관길 26



빅토리아, 꽃과 초월의 도시

봄의 섬에 나비 같은 도시라고 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정원이 있다니 얼마나 고울까?
내가 틀렸다. 캐나다 빅토리아는 봄이나 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것을 품고 있었다.
밴쿠버 페리 터미널에서 출발한 배는 1시간 남짓 파도를 넘어 빅토리아(Victoria)의 이너하버(Inner Harbour)에 도착한다. 중세 성을 닮은 호텔과 고풍스러운 건물을 등지고 태평양을 향해 활짝 문을 연 항구. 누군가 항구의 가로등마다 꽃을 매달아 봄을 밝혔다. 어느 영화에서, 어느 동화에서 이 도시를 보았을까. 사람들의 손끝, 발끝에 잎이 돋고 나비가 난다.

글 양정훈(여행작가) 사진 양정훈 外



남은 생을 시작할 섬

간혹 밴쿠버와 밴쿠버아일랜드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곳은 엄연히 다른 지역이다. 같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에 속하지만, 밴쿠버는 캐나다 본토 내륙에 있는 도시고, 밴쿠버아일랜드는 내륙에서 살짝 떨어진 곳에 자리한 섬이다. 북미 태평양 연안에서 가장 큰 밴쿠버아일랜드의 면적은 자그마치 제주도의 15배. 빅토리아는 밴쿠버아일랜드를 대표하는 도시로, BC주 전체의 주도(州都)다.

함께 여행한 캐나다인 친구는 빅토리아로 향하는 배 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금 심심한 도시지. 하지만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실은 신의 축복을 받은 거야.”

북미 서부 지역은 연중 온화한 기후를 자랑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빅토리아의 날씨를 백미(白眉)로 꼽는다. 이곳에서 삶은 함부로 쫓기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산과 바다, 도시와 교외 지역을 잇는 다양한 행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 빅토리아 시민들의 활동량은 캐나다인 평균의 2배가 넘는다는 통계도 나온다. 캐나다인은 물론 은퇴한 미국인도 남은 생을 이곳에서 보내기 위해 이주한다는 보고도 있다. 어디 보자. 지금까지의 정신없는 삶에 마침표를 찍고, 좀 더 여유롭고 평화로운 삶의 다음 장을 쓰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시. 그것만으로도 빅토리아가 어떤 환경과 공동체, 삶의 질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지 짐작하고 남는다.

빅토리아. 테리 폭스가 그토록 달고 싶었지만 끝내 달지 못한 땅. 그러나 이미 달고, 마침내 이룬 곳. 3월은 시작과 출발을 데리고 온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당신과 나의 3월 위에 부차트 가든의 꽃 한 송이와 테리 폭스의 생을 잠시 놓아두고 싶다.

캐나다와 영국 사이 러브레터

이너하버는 빅토리아 여행이 시작되고 끝나는 곳이다. 특히 봄이 오면 소박한 항구에 사람들이 들어차며 화려한 변신이 이어진다. 해안을 따라 놓인 산책로는 총천연색으로 물들고, 해안 테를 너머 빅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명물 엠프레스 호텔(Empress Hotel)은 벽마다 원색의 꽃을 내건다. 간혹 여행자들은 호텔을 두고 ‘저건 대체 무슨 성이지’ 어리둥절해하기도 한다. 주의사당, 왕립 박물관 등 주요 랜드마크가 이너하버 인근에 자리 잡고 있다. 어라? 잠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왕이 존재하지 않는 캐나다에 웬 왕립 박물관?

캐나다는 예부터 영국과 관련이 깊은 국가다. 많은 영국인이 이민을 왔고, 아직도 적지 않은 캐나다인은 자신의 뿌리를 영국 역사에서 찾는다. 빅토리아는 이런 캐나다 안에서도 영국 분위기가 짙게 풍기는 곳이다. 심지어 도시 이름도 영국 빅토리아 여왕(Queen Victoria, 1819~1901)에서 기원했다. 영국 왕가에 대한 깊은 유대와 존경이 이곳 사람들의 문화와 정신에 녹아 있다고 할까. 왕립 박물관의 이름 역시 그 연장선에 있는데, 1986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II)가 빅토리아를 방문해 주립 박물관에 ‘왕립’이라는 칭호를 하사한 뒤 이름을 아예 바꿔 달았다.

전에 없던 정원으로

도시를 걷다 보면 실제로 런던을 옮겨온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법한 풍경을 만난다. 빨간 이층버스가 도로를 오가고, 영국풍 정원이 골목 끝에 차려졌다. 말이 끄는 마차며, 전형적인 영국 스타일 건축양식도 눈에 띈다. 빅토리아는 ‘정원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대자연이 펼쳐지는 캐나다에서 상대적으로 드문 영국식 정원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을 꼽



1. 빅토리아의 랜드마크 이너하버의 봄 정경
2. 국회의사당 등 영국 여왕의 이름을 딴 도시답게 영국풍 건축물이 즐비하다.
3. 정원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봄이 오면 도시 곳곳의 가로등이 꽃 장식으로 가득하다.
4. 부차트 가든에는 다양한 품종의 장미가 피어 있다.
5. 이너하버 산책로를 따라 나서면 언덕의 숲과 공원 사이로 바다와 작은 항구가 내려다보인다.

을 때마다 이름을 올리는 부차트 가든(Butchart Gardens)이 바로 이곳 빅토리아에 자리 잡고 있다. 부차트 가든이 세계 3대 정원으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규모나 방문객 수가 압도적이라든지, 엄청난 양의 꽃과 나무를 심어놓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식물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이야기와 서사를 갖고 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골드러시 시대가 끝나고 빅토리아의 산업이 전환기를 넘던 시절, 시멘트 원료인 석회암 채석장 사업에 지역의 돈이 몰렸다. 그러면서 채석장 소유주 부차트 집안은 빅토리아의 대표적인 부호가 되었다. 1904년 어느 날, 부차트의 아내 제니는 석회암 채굴이 끝나고 남은 웅덩이에 하나에 작은 화단을 만든다. 지면보다 한 단 낮춰 반치하 형태로 조성한 침상원(Sunken Garden)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봄
채석장에도 봄은 찾아왔다. 흥물스럽게 파헤쳐지고, 흙먼지만 날리던 웅덩이에 생긴 작은 정원에 한 송이 두 송이 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 들었다. 부차트 집안에 지금까지와 다른 봄이 시작된 것이다. 작은 정원이 주는 활력과 생명력은 놀라웠다. 부차트와 제니는 그 매력에 끌려 매년 정원을 늘려나갔고, 머지않아 전 세계 다양한 꽃과 나무가 채석장에 모였다. 기록에 따르면 부차트 집안의 정원 가꾸기는 100년이 넘도록 이어졌다. 특히 그 중심에는 장미가 있었는데, 세계 곳곳에서 피고 지던 수많은 고유종부터 새로 개량한 품종까지 헤아릴 수 없는 장미가 아찔하게 정원을 수놓았다. 이제 한 해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놀라운 변화를 보기 위해 부차트 가든을 찾는다.



빅토리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빅토리아는 1843년 모피 거래소가 들어서면서 본격 성장했습니다. 이어, 골드러시 시대에는 북미 대륙을 대표하는 금광의 도시가 되었죠. 이후 상업 발전과 함께 휴양과 항구 도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BC주의 주도인 만큼 정치와 행정의 중심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부차트 가든은 어떤 계절에 방문하느냐에 따라 입장료가 다릅니다. 성수기 또는 비수기에 따라 요금이 1만 원 정도 차이 나죠.

구체적인 관람료와 시간은 부차트 가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butchartgardens.com



100년 전 그날, 부차트도, 제니도, 집안 사람 누구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웅덩이에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가 채석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들의 삶에 어떤 봄을 드리울지. 그들의 도시 빅토리아에 어떤 미래를 불러올지. 봄이란 어찌면 그런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 것도 아닌 첫발, 이 발걸음이 기어이 시간저 너머 쉽게 짐작하지 못하는 꽃과 나비의 정원으로 우리를 데려다줄지 모른다고.

여기에서 첫 길은 열리고

부차트 가든을 벗어나 비컨힐 파크(Beacon Hill Park)로 향했다. 도심과 해안을 이어 1800년대 후반 조성된 공원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잘 어우러진 숲과 연못, 해안 둘레길과 스포츠 경기장이 모두 비컨힐 파크의 명물이지만, 그중에도 가장 주목받는 건 아마 공원 한편에 자리 잡은 구조물 '마일제로(Mile Zero)' 표지석이 아닐까. 바로 여기서부터 캐나

다를 상징하는 1번 고속도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 단순하고 평범한 기념비에서 캐나다 동부 끝 세인트존스(Saint John's)의 또 다른 마일제로까지 장장 7800여 km의 어마어마한 횡단 도로가 뻗어나간다.

별것 아닌 시작, 그리고 장대한 여정. 거참 멋진 함의를 품은 공원이군.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다. 내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진짜 이야기가 남았다. 내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마일제로 표지석 건너편에 아무렇지 않게 놓여 있는 어느 동상에 관한 것이니까. 아이가 있었다. 스포츠를 사랑하고 따뜻한 가슴을 지녔던 소년. 어느덧 그의 나이 열여덟 살이 되던 해, 갑작스레 골수암 판정을 받는다. 암세포는 빠르게 온몸에 퍼져나갔다. 전이를 막기 위해 오른쪽 허벅지 아래 다리를 온통 잘라내야 했다.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젊음과 삶이 이까지 병마 앞에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그는 당당하게 장애인 운동선수로 새 삶을 시작한다. 테리 폭스(Terry Fox, 1958~1981). 캐나다가 절절히 사랑한 선수, 운동선수에서 한 시대의 빛이 된 놀라운 삶에 관한 얘기다.

초월의 소년

소년은 이제 스물한 살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크고 어려운 도전을 시작한다. 어린이 암 환자를 위한 기금 조성 마라톤을 결심한 것. 캐나다를 횡단하는 말도 안 되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자신이 지나온 어두운 터널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시작이 되고 싶었다. 새로운 미래의 첫발이 되고 싶었다.

1980년 4월, 1번 고속도로의 동쪽 끝 세인트존스 바닷가의 마일제로에서 테리 폭스의 첫걸음이 시작된다. 목표는 대륙의 반대편인 이곳 빅토리아의 마일제로까지 달리는 것. 고작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의족은 망가지고, 고치면 또다시 망가지기를 반복했다. 절단 부위는 살이 터지고, 발바닥

은 물집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는 143일 동안 하루 평균 40여 km를 달렸다.

사연이 알려지고 그의 도전에 전 세계가 주목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기적은 없었다. 암세포는 온몸에 전이되고, 그는 도전을 완수하지 못한 채 5400여 km를 달린 뒤 스물셋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아니다. 그는 마침내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해야 옳을까. 그가 그렇게 꿈꾼 어린이 암 환자를 위한 지원 기금은 6억 달러 이상이 모였고, 지금도 세계 수십 개국에서 그를 기리는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빅토리아. 테리 폭스가 그토록 달고 싶었지만 끝내 달지 못한 땅. 그러나 이미 달고, 마침내 이룬 곳. 3월은 시작과 출발을 데리고 온다.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이다. 당신과 나의 3월 위에 부차트 가든의 꽃 한 송이와 테리 폭스의 생을 잠시 놓아두고 싶다. 빅토리아를 떠나 캐나다 내륙으로 돌아오는 길. 배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이전과 조금 다르게 보였다. 거짓말처럼 배를 따라 돌고래들의 유영이 이어졌다. 오늘까지 세상과 이제 다음 세상. 그 사이에 구분 선을 새겨 넣고 더 좋은 삶에 관해 쓰고 싶어졌다. 이 눈물겹게 눈부신 봄에 마땅하도록.



- 부차트 가든은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어 방문자에게 조금씩 다른 정경을 보여준다.
- 노을이 지는 이너하버, 밴쿠버 아일랜드와 본토 서부를 오가는 페리에서는 아름다운 태평양의 석양을 만날 수 있다. 종종 거짓말처럼 범고래 떼나 돌고래 떼가 페리를 따라오기도 한다.
- 비컨힐 파크를 비롯해 캐나다 전역에 테리 폭스의 동상이 있다. 캐나다인은 그의 정신과 그가 보여준 기적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상상에 '날개'를 달아 일상을 날아오르다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3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도전에 앞서 용기를 다짐하는 시간.
저마다의 인생을 격려하면서도 새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주는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를 만났다.
글 정리희 사진 제공 무비스트



어릴 적 꿈

꿈은 한낱 어린 시절 몽상에 지나지 않는 걸까. 인생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스케치를 그릴까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던 때가 있었다. 처음 몇 장 정도는 연습하는 셈 쳐도 남아 있는 다음 장이 있으니.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건 아닌지, 하루하루 다음 단추를 채웠을 뿐인데 지금 '나'를 설명할 프로필은 수년의 사회생활 경력 외에는 별게 없다. 16년간 꾸준히 나온 매거진 <라이프>에서 사진 현상 업무에 충실했던 월터처럼.

옆머리를 뿔하게 밀어버린 모히칸 헤어스타일에 스케이트보드를 제법 잘 타던 어린 소년은 오래전 사진에나 남아 있을 뿐이다. 다소 고리타분해 보이기까지 하는 특색 없는 중년 남성의 모습이 바로 월터의 현재 모습. 어릴 적 아버지가 선물해준 여행 일기장은 단 한 줄의 기록도 없이 죄다 빈칸이다. 해본 것도, 가본 곳도 좋아하는 것도 없는 특별한 것 없는 인생. 그는 자신의 인생을 그리 정의했다.

그렇다고 그가 대충 살아온 것은 아니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뒤를 돌아볼 것도 없이 생계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그러나 적어도 필름 원화 관리만큼은 누구보다 프로다.

가끔은 그도 남다른 인생을 산다. 히어로 만화 주인공처럼 공중 위를 날아올라 폭발 사고 현장에 있던 강아지를 구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못된 상사를 액션 영화배우처럼 멋지게 혼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의 상상 속에서만 펼쳐진다. 12시 종을 맞은 신데렐라처럼, 상상이 끝나는 순간 그는 다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현실의 샌님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또 하루를 보낸다.



일단 시작

한눈팔지 않고 열심히 살아도 위기는 온다. 월터의 평생직장이거나 다름없던 <라이프>가 폐간의 갈림길에 서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한다. 동시에 <라이프>의 마지막 표지가 될 25번 필름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하다. 직장에서의 생존을 좌우할지도 모를 마지막 미션인 셈.

월터는 휴대전화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사진작가 손을 찾기로 한다. 비어 있는 25번 필름 전후로 있는 사진과 '손이 그린란드에 있을 것 같다'는 단서에 의지해 난생 처음 자기 나라를 벗어나 그린란드행 비행기를 타는 월터. 좋은 사진을 찍으려 위험한 지역도 마다하지 않는 손의 흔적을 추적하는 일은 그야말로 모험의 연속이다.

그 여정 가운데 월터의 프로필도 빼곡하게 채워진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드라마틱한 경험들로. 불과 2주 사이, 모든 여정을 마쳤을 때 월터의 외양과 마음가짐은 사뭇 달라져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험 이전의 인생이 의미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어제도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사람 앞일은 모른다는 게 인생이지만, 쳇바퀴 굴리듯 살아가는 일과 속에 변화는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가슴을 가득 채웠던 모험심은 간데없이, 나이를 먹으며 일상에 매몰된 자신이 더 익숙하다.

가끔은 영화 속 주인공을 통해 '나'를 본다. 상상의 틀을 넘어 자기만의 비행을 시작한 월터를 응원했던 이유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많은 상상을 어떻게 현실로 풀어낼 수 있을까. 출발은 그리 어렵지 않을지 모른다. 일단 항공권을 예매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테니까.



보편적 가치가 최고인 따뜻한 공간

경기 양주도담학교

지난해 9월 개교한 양주도담학교는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다.
일반 학교와 비교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한 끝에
만든 양주도담학교는 장애 학생의 교육과 안전은 물론 지역
주민과 소통까지 염두에 두고 탄생했다. 2018년 대한민국
우수시설학교 대상을 수상한 양주도담학교를 찾아갔다.

글 이아도 사진 황원



특수성을 고려하다

경기 양주시 옥정서로 5길 121에 자리한 양주도담학교는 외관만 보면 과연 어떤 곳인지 궁금해진다. 산을 병풍처럼 두른 채 주황색, 노란색 등 환하고 아기자기한 색을 입은 ‘ㄷ’자 모양 건물이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특수학교의 불모지인 경기 북부 지역에 세 번째 생긴 학교인 양주도담학교에서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전문대 과정의 전공과 4학급을 포함해 총 18학급, 120명의 장애 학생이 공부한다. 2018년 9월에 개교했으니 채 6개월이 되지 않은 신생 학교다. 더불어 학교의 특수성을 건물에 반영한 것은 물론 지역사회와 소통과 융합까지 고려한 공간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학교를 천천히 둘러보자. 내부에 들어서는 순간 넓고 큰 복도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 복도만으로도 지적장애를 수반한

지체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특수성을 고스란히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각 장애의 특성에 따라 건물의 시설이나 환경은 당연히 다릅니다. 휠체어를 타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학생들이 다니는 만큼 복도 같은 공간이 넓어야 해요. 청각장애 학생들은 그만큼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각장애 학생들은 계단에 문을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고려해야 하죠.”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현철 교무부장이 양주도담학교의 구석구석을 안내했다.

그 외에도 양주도담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시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반 학교에 비해 학부모의 출입이 잦기 때문에 마련한 학부모 대기 공간, 시각장애인의 방문을 대비해 복도 벽에 설치한 높낮이가 다른 봉, 휠체어로 오르내릴 수 있는 길 코너에 부착한 폭신한 쿠션 등이 모두 그것이다.



보편성으로 하나 되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과 교과 교육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자연스러운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곳저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치와 손을 씻기 위해 곳곳에 놓아둔 싱크대는 학생들이 청결과 위생 관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기 위한 시설. 초등학교 각 교실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을 설치해 아이들이 실수를 해도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했다.

“위생과 청결은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기 위한 요소입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게 신변 관리이므로 생활지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요. 자립과 통합을 위한 교육의 시작인 셈이에요.”

양주도담학교는 설계부터 건설까지 많은 이의 생각을 모아 완성했다. 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가 함께 고민했고, 시공사는 주변 특수학교를 방문해 필요한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일찌감치 파악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도 개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준비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계속 듣고 있어요. 아무리 안전해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로 나갈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이지요.”

1층에 공사 중인 카페가 완공되면 바리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을 위한 실습 장소로 활용하려 한다. 학교 측은 외부 손님이나 지역 주민들도 이곳을 방문하게 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통합하는 분위기로 조성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단상이 낮고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따로 나 있는 체육관 역시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머지않아 양주도담학교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보편적 설계로 학생은 물론 비장애인에게도 좋은 시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길 바라요.”

공간이 배려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면 그곳은 언제나 머무르고 싶은 공간이 된다. 사회적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발휘하는 공간의 힘, 그 중심에 양주도담학교가 있다.



부담되는 교통비, 스마트하게 줄이는 법

직장인에게 교통비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지출로 분류된다. 뭇박이를 자처하지 않는 한 여간해서 줄이기 쉽지 않은 게 현실. 그나마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한 달에 적게는 7만원 내외로 해결되지만, 자차로 출퇴근할 경우엔 기름값으로 수십 만원이 깨지기도 한다. 여기에 주말 나들이에 들어가는 교통비까지 생각하면 월급이 야속하기만 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비 지출은 255만7000원이며, 이 중 교통비(14.4%) 비중이 가장 높았다(2017년 기준). 이런 상황에서 올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택시비가 인상되었고, 대중교통 요금마저 오를 조짐이 보인다. 교통비를 방어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글 구체회(재테크 전문 기자)



대중교통은 조조할인, 정기승차권 공략!

대중교통비를 더 이상 아낄 수 없다는 생각은 편견이다. 매일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직장인도 마음만 먹으면 교통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출근 시간이 이르다면 대중교통 조조할인을 공략하자. 오전 6시 30분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20%가 할인된다. 수도권 지하철은 모든 노선에서 조조할인이 적용되고, 버스는 서울 시내버스와 서울을 거쳐 가는 광역버스만 해당한다. 한 번 탑승하면 이후 환승과 하차 시간에 관계없이 할인이 유지된다. 단, 대중교통 조조할인은 교통카드만 가능하고, 현금으로 낸 요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하철을 자주 타는 직장인이라면 '정기승차권'을 끊는 게 이득이다. 정기승차권은 44회분 월정액 요금으로 월 최대 60회까지 탈 수 있는데, 서울전용권은 30일 동안 5만5000원으로 지정 구간에서 60회 승차가 가능하다. 기본 운임 1250원을 기준으로 44회 이용 시 5만5000원이 되므로, 매달 16회분을 무료로 이용하는 셈이다. 돈으로 환산하면 월 2만원, 연간 24만원을 아낄 수 있다. 단,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면 이용권 1회가 추가 차감된다. 별도의 지정 구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거리 비례용 정기승차권도 있다. 단, 정기승차권은 개시 후 30일이 지나면 잔여 횟수가 자동 소멸되고, 버스 환승에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티머니 교통카드 적립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현금을 사용할 때보다 1회당 50원이 저렴할 뿐 아니라 충전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도 별도로 적립해준다. 여기에 버스, 지하철 이용 시 이용 금액의 0.2%가 추가 적립돼 카드에 2.2%가 자동 충전된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편의점 등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는 세금 연납제, 마일리지제 공략!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년 1월 자동차세 연납제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의 10%가 할인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에 부과된 세금이 30만원이라면 연납제를 통해 27만원만 내면 된다. 1월에 놓쳤다면 3월(7.5%), 6월(5%), 9월(2.5%)에도 낼 수 있는데 기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은 낮아진다. 위택스(wetax.

go.kr)에 접속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시군구청 및 동사무소에 전화해 연납제도를 신청하고 정해진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신용카드 결제 시 3개월 할부도 가능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운전자라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도 눈여겨 보자. 자동차 운행 거리를 줄이면 최대 7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1년 단위로 주행거리를 등록한 뒤 전년 대비 감축량과 감축률에 따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제공된 마일리지는 모바일상품권, 세금 납부, 기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7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과 누적 계기판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매년 5월 접수한다.

비싼 기름값을 셀프 주유로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다. 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주 4회 이상 운전하는 운전자는 차량 유지비로 연간 462만원을 쓰는데, 이 중 주유비가 303만8000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셀프 주유소는 인건비가 들지 않아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리터당 50~100원가량 저렴하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오피넷' 앱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에 서 가장 가깝고 기름값이 저렴한 셀프 주유소를 찾을 수 있다. 평소 연비를 높이는 운전 습관을 갖는 것도 유류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타이어 공기압은 30~34psi로 유지하고 운전 모드는 'ECO 모드'로 설정해 트렁크를 최대한 가볍게 유지하자. 주유할 땐 최소한의 눈금이 한 칸 이상 남았을 때 주유해야 기름이 많이 들어가고, 주유량은 연료량의 70~80%만 채워야 기름 소모량이 줄어든다. 또한 따뜻한 한낮보다는 기온이 낮은 아침과 저녁에, 비나 눈이 오는 습한 날보다 맑은 날에 주유하는 것이 연비 효율이 높다.

새어 나가는 교통비 막기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돈이 나가는 상황이 생긴다. 가장 흔한 것이 과태료다. 잠시 다녀올 요량으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했다 딱지를 때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럴 땐 사전에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앱'을 내려받아 차량 번호와 소유주명,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구청에서 불법 주차 단속 전 문자 알림을 보내준다. 문자를 받고 5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4만원에 달하는 주차위반 딱지를 피할 수 있다. 자신의 거주지 또는 직장 근처, 자주 가는 지역의 관할 구청에 문자 알림을 신청하면 된다.



“멘토가 있어 든든해요! 멘티가 있어 행복해요!” 멘토링 희망캠프 2019

2019년 1월 28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첫 번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희망캠프 2019'를 개최했다. 교직원공제회에서 후원하는 대학생 멘토와 중·고교생 멘티가 한자리에 모여 2박 3일간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중계방송한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희망캠프, 밝은 미래를 만나다

지난 1월 28일, 여의도에 자리한 The-K타워에 수줍은 표정을 띤 학생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수도권 지역은 물론 대전, 공주 등지에서 온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가벼운 설렘이 느껴졌다. 이들은 바로 '멘토링 희망캠프 2019'에 참가하는 멘토·멘티였다. 캠프에 참가한 이는 총 23명으로, 벌써 1~2년 가까이 멘토와 멘티 사이로 정을 쌓아온 파트너들이다. 그래서일까, 가족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살가운 미소와 정겨운 대화가 사방에서 소곤소곤 들려왔다.

오전 11시, 캠프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미경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부장이 먼저 연단에 올라 소감을 밝혔다.

“멘토링 희망캠프 2019'는 멘토·멘티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찾기 위해 교직원공제회가 올해로 6회째 진행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여의도와 양평에서 열릴 다채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와 멘티 모두 보람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참가자들은 이미경 부장의 인사말을 듣고 모두 큰 박수를 보냈다. 뒤이어 연단에 모습을 보인 사람은 학생들 사이에 앉아 스스럼없이 말을 건넰 차성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다.

“교직원공제회는 10년째 멘토·멘티 후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저나 선배들

이 살아온 세상과는 다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데 우리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멘토와 멘티로 맺은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바랍니다.”

차성수 이사장은 “이번 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며 자신의 멘토와 멘티 외에도 많은 사람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것을 권했다.

게임과 웃음으로 펼쳐버린 어색함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참가자들은 이어서 교직원공제회 사무실을 잠시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졸업 후에 교직원공제회에 취업하면 어떻겠냐며 껄껄 웃은 차성수 이사장의 말에 모두의 눈빛이 반짝였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 본격적인 캠프 일정에 돌입했다. 제일 먼저 들은 강의는 'Mentoring Touch' 프로그램이다. 이는 “멘토링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지만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얻을지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시간”으로 멘토링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멘토와 멘티로서의 역할과 자세를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멘토와 멘티들은 간단한 퀴즈와 게임, 놀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알아보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이번 캠프를 위한 준비를 즐겁게 마쳤다.

드디어 양평으로 이동했다. 연수원에 도착하자





마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영미 열풍’을 일으킨 컬링 게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얼음판은 아니지만 바퀴가 달린 스톤을 밀어 동그란 원 안의 버튼에 가깝게 스톤을 놓으면 점수를 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에서 시작한 컬링 게임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자신이 속한 조의 스톤이 다른 조의 스톤을 밀어 내면 환호가 터지고, 반대로 자기 조의 스톤이 밀려 나가면 아쉬운 탄성이 사방에서 흘러나왔다. 잘 쳐도, 못 쳐도 하이파이브로 서로를 응원하는 그들의 모습에는 더 이상 초반의 어색함 대신 끈끈함이 감돌았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모인 참가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시간. 풍선과 비눗방울을 이용한 신기한 묘기에 모두 비명과 박수를 쏟아내며 직접 게임에 참여하는 등 함께하는 내내 더할 나위 없이 유쾌한 분위기가 흘렀다.

체험하고 놀고 느끼다

둘째 날은 역동적인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풍성했다. 사륜 오토바이 ATV와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는 오전 스케줄에 멘토와 멘티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가장 기대감을 보인 김승태 멘티는 “캠프 일정 중 제일 고대하던 프로그램”이라며 연신 함박웃음을 지어 보였다.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일 터. 전체 행사를 통솔한 고부현 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장은 “짧지 않은 일정이

기 때문에 안전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다”며 행여 생길지 모르는 실수나 사고에 대비해 하나하나 참가자들들과 장비를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에너지와 섬세함이 어우러진 서바이벌 게임과 ATV 타기는 그야말로 흥미진진했다. 하나로 뭉쳐 소통하고 화합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서바이벌 게임을 통해 멘토와 멘티들은 어우러짐을, 또 ATV를 몰며 달리는 바람 속에서 학생들은 자유로움을 느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참가자들의 생기가득한 모습에 지켜보는 이들도 싱글벙글이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 뒤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학업과 일상에 지친 아이들을 위한 자연 속 힐링 이벤트가 준비된 것. 멘토와 멘티들은 양떼 목장에서 양과 염소, 타조를 구경하고 직접 먹이를 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바로 이어진 딸기 따기 체험 농장에서는 직접 비닐하우스에서 주렁주렁 열린 딸기를 수확해 따먹기도 하고 딸기 케이크를 만들어보기도 하는 등 미각의 즐거움은 물론 과수 재배 농민들의 노고까지 느낄 수 있는 보람찬 일정을 소화했다.

저녁 시간도 알차다. 음악과 대화가 함께한 ‘멘토링 뮤직 토크콘서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멘토와 멘티는 음악과 사연을 통해 평소 나누기 힘들었던 깊이 있는 소통을 주고받으며 속내를 털어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을 마친 멘토와 멘티의 표정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듯한 충만감이 가득했다.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이번 캠프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캘리그라피다. 미술 작품 감상과 직접 제작을 통해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물론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을 서로 교환하면서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컴퓨터 자판에 익숙한 요즘 세대답게 글씨 쓰기 자체를 낯설어 했지만 강사의 설명을 따라 캘리용 붓을 잡고 글씨를 ‘그리는’ 재미에 푹 빠졌다. 평소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체험과 문화경험이 어우러진 교직원공제회 ‘멘토링 희망캠프 2019’. 멘토와 멘티를 뛰어넘어 형·동생, 언니·동생이 된 이 시간이 소중한 이유는 참가자들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될 가장 든든한 재산을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멘티, 파이팅!”을 외치며 저마다 흥을 가득 안고 흠어진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그간의 스트레스를 다 털어낸 가벼움과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한가득 흘러넘쳤다.



MINI INTERVIEW



고부현 한국교직원공제회 경영지원팀장

교직원공제회는 멘토·멘티 학생들이 건전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을 갖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끈끈한 정을 갖고 서로 의지하길 바랍니다. ‘멘토링 희망캠프 2019’는 가장 안전하게 다양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했는데, 행복한 추억을 안고 가길 바랍니다.



서유정 멘토(한양대), 도설야 멘티(금천고)

작년 이맘때 멘토와 멘티로 첫 인연을 맺었습니다. 멘토로서 멘티의 학습 지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설야가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설야도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서 굉장히 좋아했고요. 올해에도 멘토, 멘티로서 서로에게 충실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김승태 멘티(의정부공고), 나강훈 멘토(광운대)

멘토와 멘티로 만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냥 형, 동생 같아요. 승태는 이 만남으로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군대나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상담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저 역시 멘토 활동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멘토링 활동도 보게 되어 아주 유익했습니다.

은은한 향기 가득 꽃길 따라 맛길 따라 온몸에 퍼지는 새봄

The-K지리산가족호텔



지리산 자락을 타고 꽃눈 망울이 터진다. 시린 겨울내 움크렸던 새싹이 고개를 내민다. 드디어 봄을 맞이할 때. 오래 기다린 만큼 꽃길 하나 믿고 떠난다. 그 길에 산길 따라 물길 따라 피어난 미식거리가 흥을 돋운다. 전남 구례로 떠나는 길이 즐거운 이유다. 글 정수희 사진 제공 The-K지리산가족호텔·구례군청



봄의 여신이 품은 자락

3월, 전남은 꽃내음으로 넘실거린다. ‘혹한의 추위에 얼어 죽을지라도 결코 향기는 팔지 않는다’는 매화가 봄의 시작을 알린다. 용기와 고결의 뜻을 지닌 매화답게 코끝에 맑고 깨끗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 솜사탕을 한아름 안은 양 매화의 포근함에 마음마저 보드랍다.

매화뿐이 아니다. 지리산 자락을 중심으로 곳곳에 산수유가 탐스럽게 흐드러진다. 섬진강 주변은 노란 꽃 물결로 벌써부터 가득하다. ‘영원한 사랑’이라는 산수유꽃의 꽃말처럼 산에도 들에도 노란빛으로 사랑을 채운다.

산수유꽃을 더욱 진하게 취하고 싶다면 3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구례군 지리산온천관광단지 일원에서 펼쳐지는 ‘구례산수유꽃축제’ 나들이를 추천한다. 구례는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60% 이상을 점할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산수유 군락지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산수유 시목이 구례군 산동면에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산수유 열매를 보고 있자면 ‘샛노란 꽃에서 어찌 그리 빨간 열매가 맺힐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산수유 열매는 보통 8월에서 10월에 루비처럼 붉게 익는데, 열매는 바로 먹지 않고 차나 술 또는 한약재로 만든다. ‘구례산수유꽃축제’에서는 산수유꽃으로 만든 차, 술, 음식 등을 맛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체험이 준비돼 있어 가족과 연인들이 나들이하기에 좋으니 봄을 만끽하고 싶다면 서둘러 방문하자.



봄과 미식이 만나면

봄맛이는 입안에서도 시작된다. 구례는 수려한 풍경과 더불어 다양한 먹거리가 풍요롭기 때문이다. 섬진강 유역에 봄이 오면 귀한 미식거리가 반기는데, 그 첫 번째로 ‘벗굴’을 말하고 싶다. ‘매화가 피면 벗굴도 핀다’는 말처럼 봄의 시작을 알리는 벗굴은 섬진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 지역에서 자라는 초대형 굴이다. 큰 굴은 30cm가량 되니 아이 얼굴보다 큰 것. 벗꽃이 만개할 즈음까지 최고의 맛을 자랑하기에 이름도 벗굴이다. 강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서 자라 간이 적당히 배어 있고 식감도 쫄깃하면서 부드러워 귀한 대접을 받는다. 귀한 것도 넘치면 해로울 수 있다. 날것이니 너무 많이 먹으면 자칫 탈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지리산 고로쇠도 빼놓을 수 없다. 구례의 특산품



으로 지정될 만큼 담백한 맛과 그윽한 향취를 자랑한다. 삼국시대부터 빼에 이롭다 하여 ‘골리수’라고도 불리는 고로쇠는 칼슘이 풍부하다. 보건환경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구례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에는 칼슘, 마그네슘, 포도당, 미네랄 등의 영양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이뿐일까. 고사리, 더덕, 취나물, 도라지 등 지리산 자락에서 나고 자란 다양한 산나물은 하나하나 지리산의 맛을 대변한다. 지리산이 깊고 물이 맑으니 산나물에도 더 이상 좋은 발은 없을 것이다. 은어의 진미도 맛보자.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자라고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은어는 전국의 강에서 서식하는데, 그중 섬진강의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은어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했을 정도로 투명한 빛과 담백한 맛을 자랑한다. 여전히 으뜸으로 알아주는 구례의 특산물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은천로 317
● 061-783-8100

꽃길 따라 물길 따라 최적의 장소

봄꽃과 함께 미식 여정을 즐겼다면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 자연과 하나 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겠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전남 구례에 위치해 봄나들이를 즐기기에 적합하다. 구례뿐 아니라 경남 하동, 전북 남원과도 멀지 않아 최적의 숙박 장소로 꼽힌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공제회원을 위해 특별 패키지도 마련했다. 공제회원이라면 11만7000원으로 룸 이용이 가능하며, 조식(2인) 포함 시에는 13만원이다. 아울러 The-K지리산가족호텔에서는 신비의 약수 고로쇠를 패키지 상품으로 출시해 고로쇠 1.5L 두 병과 객실을 8만~12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3월, 섬진강 물줄기 따라 지리산 꽃 너울 따라 새봄 절정의 묘미를 느껴보길 바란다.





‘교직원라이프’ 건강 정보, 이벤트 페이지 3월 오픈 자가 진단으로 적절한 보험 검색...경품 이벤트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의 건강 정보, 이벤트 페이지가 3월 4일 오픈한다. 이 페이지는 회원에게 건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평소 건강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게 하고, 필요한 보험을 적절히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었다. 매달 회원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주제로 선정, 회원이 주제와 관련된 자가 진단을 진행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처방전으로 볼 수 있게 구성했다. 3월의 주제는 ‘갑상선암’이다. 자가 진단, 전문가의 처방전으로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간단한 퀴즈도 풀면서 경품 이벤트에도 응모할 수 있다. 공제회 홈페이지(ktcu.or.kr)에 접속해 자가 진단,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전시회 개최 4월 6~12일 서울 예술의전당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전시회가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3층 제 5, 6 전시실에서 열린다.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교직원의 문화 예술 활동 독려와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자긍심 고취, 교육가족이 함께하는 문화 교류의 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전시회에는 회원 작품 200여 점과 초대 작품 10여 점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예전보다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개막식은 4월 6일(토) 오전 10시에 개최한다. (무료관람)

교직원공제회 사학연금과 업무협약 체결 복지사업 공동 시행으로 교육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월 14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과 공동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사진 왼쪽)과 이종훈 사학연금 이사장 등 10명의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직원공제회는 이날 협약식을 바탕



으로 회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학연금과 복지사업을 공동 시행하는 등 회원 편익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각종 회의나 행사 개최 시설 상호 활용 등의 업무 협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교직원공제회는 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제·연금기관협의회를 통해 회원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7년에는 직원 복지 서비스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해 교직원공제회 회원이 천안상록리조트, 풀에이리조트, 호텔인터시티 등 각 기관의 직영 복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전국 21개 교육연수원에서 ‘찾아가는 행복나들이Ⅱ’ 개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월 한 달 동안 울산·광주·강원·충남·인천 등 전국 21개 교육연수원을 찾아 신규임용 교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나들이Ⅱ’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교육연수원별로 콘서트·드로잉쇼 등의 소규모 공연으로 진행됐다. The-K 행복서비스인 ‘찾아가는 행복나들이’ 행사는 교직원 연수 행사를 방문해 강연회, 공연 등을 펼치는 행사다. 교직원공제회는 연중 The-K행복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뮤지컬, 음악회, 서커스, 콘서트 등 각종 공연부터 미술 관람, 교육 체험 활동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를 선사할 계획이다.



풍성한 봄맞이 프로모션과 함께하는 The-K호텔

The-K호텔경주는 3월 1~31일까지 ‘봄맞이 패키지’를 판매한다. ▶스탠다드룸 1박, 조식 2인 이 10만6000원부터 이용 가능하다.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3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뷔페 축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졸업생·입학생을 동반한 4인 이상 고객 식사 시 해당 고객 1명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며, 3인 이용 시 해당 고객 1인의 식사를 50% 할인해준다. 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 054-745-8100



The-K호텔서울은 3월부터 5월까지 ‘스프링 패키지(Spring Package)’를 판매한다. ▶패키지 A-일반실 1박, 우첼로 모닝 뷔페 2인 15만원 ▶패키지 B-일반실 1박, 더파크 저녁 뷔페 2인 18만원 ▶패키지 C-일반실 1박,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인 13만5000원이다. 또한 ‘졸업·입학 프로모션’을 3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우첼로는 졸업생·입학생을

동반한 고객이 식사 시 15% 할인, 해당 고객에게 주스 한 잔을 증정한다. 더파크는 해당 고객의 식사를 50% 할인해준다. 프로모션은 졸업·입학증명서를 지참한 고객에 한해 제공한다.

☎ 02-571-8100, 02-526-9562(더파크)



The-K설악산가족호텔이 3개월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새롭게 정비한 시설을 선보였다. 이번 공사로 사우나 시설, 바비큐장 등 고객 편의 시설이 확충됐다.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20평 ▶29평 ▶47평의 총 76개 객실을 갖춘 콘도형 호텔로 가족 단

위 여행은 물론 각종 회원 단체 연수, 세미나 진행에도 알맞다.

☎ 033-639-8100

The-K에다함상조, 총자산 4000억원 돌파

The-K에다함상조의 총자산이 4000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 회계 결산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선수금(고체 총납입금)은 3616억4930만원, 총자산은 4205억2844만원으로 집계됐다. 선수금은 2013년 650억원에서 5년 만에 500% 성장을 이뤘으며, 2013년 손익분기점을 돌파해 2014년부터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상조업체의 방만·부실 경영으로 상조회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반면, The-K에다함상조의 재정 건전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회계지표 양호 상조업체 공개’ 자료에 따르면 에다함은 ▶지급여력비율 ▶순전자본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자본금 모두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현재 신한·우리·하나·전북·수협·SC제일 등 총 6개 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맺어 고객 납입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있다.

The-K서드에이지, 신규 계약자 입주보증금 최대 1년 유예



경남 창녕에 위치한 The-K서드에이지는 단순한 주거 기능 외에도 의료, 문화, 레저 등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품격 실버타운이다. 입주 방식에는 ▶장기임대계약 ▶단기계약 ▶별장형 계약이 있으며, 계약 후 일정액의 입주 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올해부터 단기계약 시 최소 계약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했다. 단기계약 방식은 건강 증진을 위해 요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전원생활을 하려는 회원들을 위해 도입됐으며 1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또한 2019년 계약고객에 한해 입주 보증금의 50%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해준다. 계약 후 6개월 이내 입주하는 경우 공동 생활비 30~100% 금액을 1회 감면해준다. 입주 보증금은 퇴거 즉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공제회가 지급보증을 해 입주자는 안심하고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

☎ 055-530-8211

The-K손해보험, 홈페이지 전면 개편

The-K손해보험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3월 말 오픈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스마트 플랫폼 구축으로 자동차보험 맞춤형 설계, 간편계산기 등 시뮬레이션 기능을 강화했고, 가입자가 간편하게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또한 보험 가입 시 본인인증 방법으로 카카오페이 인증을 추가했고, 보험료 결제 시 네이퍼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 방법을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에듀카 원데이보험 앱도 개선했다. 업무별로 화면을 구성해 사용자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였다. 또 기존에는 앱을 통해서만 원데이보험을 들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바일 웹으로도 가입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 1566-3000

<The-K 매거진> 3월 즉석당첨 이벤트

설~레는 새 마음으로 3월을 기대해!

이벤트 기간
3월 1일 ~
3월 31일

기분 좋은 새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딸각딸각 클릭을 유발하는 상품,
여기 모았습니다. 경품 받고 기분 UP UP~! 즐거운 새 학기 보내세요!



100개

₩ 10000

200개

₩ 5000

500개

아리따움 기프트카드
1만원권(모바일)

GS 편의점 상품권
5천원권(모바일)

스타벅스 카페아메리카노
Tall(모바일)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3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4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정행위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흔적을 따르는 길

100년 전, 내 모습은 어땠을까. 이번 3월호를 준비하면서 내내 떠오른 생각입니다. 올해는 삼일절 100주년, 우리 겨레가 삼일운동을 펼친 지 1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자와 맹자는 나라를 되찾은 뒤 잃어도 늦지 않다. 의로움과 생명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을 때는 의로움을 택하라.”

석주 이상룡 선생의 말씀입니다. 1911년 1월, 선생은 임청각과 전답을 모두 팔아 조선의 삶을 정리한 뒤 일가를 이끌고 중국 동삼성으로 망명을 결심합니다. “너희도 이제 독립군이다”라는 말과 함께 안동에서 처음으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이들을 해방시켰죠. 처분한 모든 재산은 독립 자금으로 썼습니다. 당시 선생의 나이는 50세. 그저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자신의 삶이 어우러진 고향을 떠나 독립운동에 모든 것을 건 결단.

어떤 말로 선생의 생을 논할 수 있을까요. 이 길을 걸은 건 비단 석주 선생뿐이 아니지요. 자신의 생을 바쳐, 영혼을 바쳐 지킨 나라. 민족 정신을 빼앗길 수 없어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나라.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로부터 100년 뒤 2019년, 이 자리에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고 꿈꾸던 일을 하며 새로운 모험을 위해 몽상하는 등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 자신의 생이 몹시 빛나 보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담긴 길, 그들의 여정이 쌓인 길, 그들의 꿈이 담긴 길. 그들의 온전한 생애로 가득한 이 길이 험되지 않게 그들의 흔적을 따라 행복하려 합니다.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도 ‘아름다운 동행’ 촬영을 위해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신 KT&G 상상마당 춘천의 한수지 대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대리님 덕분에 아름다운 동행 촬영이 탈 없이 마무리되었어요. 고맙습니다.

머나먼 멕시코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김소현 선생님. 한국어교원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사람 김소현으로서 선생님이 꿈꾸는 모든 것이 이뤄지길, 여전히 꿈꾸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길 기도합니다.

